

## “엄마 나 감옥에 있어 돈 필요해 보내줘~” (영어로)

### Cover story 보이스 피싱

시니어 대상 보이스 피싱 심각한 수준  
연방정부 “지난 5년 새 10만 건 피해 접수”  
판단력 흐려져 ‘조부모 사기’ 무심코 당해

“엄마 나 감옥이야. 어젯밤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잡혔어. 이 변호사 시키는 대로 해” (영어로).

시애틀의 A 씨가 최근 당할 뻔한 보이스 피싱 범죄  
다. 일명 ‘그랜드 페어런츠 사기’ (조부모 사기)로 불  
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다행히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돼 피해를 모면했다.

요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 또는 손  
주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팬더믹 이후 급격히  
늘고 있다.

연방 통신위원회(FTC) 이메일 우 검사는 이런 사  
기에 당하는 시니어들이 지난 5년간 10만 건이 넘는  
다면서 직접 집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 가는 대담한  
사건도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보  
이스 피싱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무려 600% 늘었다고  
밝혔다.

‘조부모 사기’는 자녀나 손주를 가장해 부모나 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또는 사고, 납치 등 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전형적인 시니  
어 대상 보이스 피싱 수법이다. 특히 부모를 놀라게 하  
고 싶지 않다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도 한다. 조부  
모들이 확인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경찰관, 의  
사, 변호사 등을 사칭해 손주가 위험하다며 돈을 뜯  
는 사례도 많다.

8면에 계속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그래픽 유



### 메디케어

직장 건강 보험 끊었다면 3면

### 소셜시큐리티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5면

### Cover story

시니어 대상 보이스피싱 심각 8면

### 시니어 아파트

공급 부족해 7~10년 대기 10면



### 교육

자녀·손주 대학 학자금 걱정 21면

### 잘먹고 잘살기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3면

###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면

### 칼럼

김동희 칼럼 26면

### USmetronews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  
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contact@usmetronews.com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일식 전문  
혜밀리 레스토랑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leenleegallery.com

#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의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치과**

연간 리미트 \$1500 선에서 다양한 치과 진료 혜택 보장  
코페이 \$0 정기 check업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침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플랜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연간 평균 18회 제공 (보험사에 따라 24~36회 까지 보장)

**3**  **안경**

대다수 안경테 (\$200 까지), 렌즈, 눈검사 등 전체 보장  
(코스트코, 계약되어 있는 다수의 한인 안경점)

**4**  **보청기**

귀 안에 쏙 들어가는 최신 보청기 보험 플랜에 따라  
\$1000 ~2000 까지 보상

**5**  **일반의약품 (OTC)**

보험사 플랜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100 정도  
현금을 데빗카드에 입금  
진통제 부터 파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처방약이 아닌  
제품을 위한 OTC 구매 지원 제공

**6**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메디케어 HMO 플랜에 따라 적은 곳은 5만 달러에서  
많은 곳은 100만 달러까지 커버

**7**  **차량 제공**

고령의 시니어가 병원이나 주치의 방문 시  
필요한 교통편 제공. 연간 리미트 24회까지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8**  **운동**

“실버스니커즈” 연계된 24시간 피트니스,  
YMCA 등 전국 1만 4000여 곳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보험사 플랜에 따라 골프비용 한달에 \$45 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발기부전  
치료제**

주치의 처방시 매달 4~6 알의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아그라, 시알리스) 제공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의  
제네릭 치료제가 제공

**10**  **기타 혜택**

어떤 플랜은 퇴원 후 3~5일간 식사 자택으로 배달  
당뇨 시니어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공 등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에트나  
에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90% 이상의 한인 의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되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직장 건강 보험 끊었다면 8개월이내 파트 B 가입해야

CMS-40B, CMS-L564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약 처방전 플랜은 혜택 잃은 지 63일 이내 선택  
메디캡은 6개월 이내 가입해야 병력 안따져



메디케어는 65세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늦게 가입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게으른 데 대한 벌금이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더 이상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SEP이라고 불리는 ‘특별 가입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제공한다.

### 퇴직하거나 직장 건강보험을 잃었다면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면 65세가 돼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업원 20명 이상의 직장이어야 한다.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의 직장에서 직원 그룹 보험을 제공한다면 직장 보험이 IRS에서 규정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알아봐야 한다. 직장 보험이 있어 65세에 메디케어를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별도로 소셜시큐리티국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65세가 되기 3~4개월 전 소셜 시큐리티국이 메디케어 카드를 보내 준다. 이럴 때는 카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보내지 않으면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건강 보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면 건강 보험을 잃은 후, 또는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지만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간을 ‘특별 가입 기간’ 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 처방전 플랜은 직장 보험이 중단돼 약 보험이 소멸된 이후 63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SEP 기간에 파트 B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되는 일반 가입 기간에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은 그해 7월부터 유효하게 된다.

### 신청하기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직접 방문은 코비드 19으로 현재는 불가능함)로 메디케어 신청 절차대로 신청한다. 하지만 65세 때 파트 A만 신청했다면 직장 보험에서 이탈한 후 파트 B만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신청 의향서인 폼 CMS-40B와 직장 보험에서 나와 메디케어로 옮긴다면 직장 보험이 있었다는 직장 증명서 폼 CMS-L564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직장 증명서 폼에는 직장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의치 않아 직접 작성한다면 직장 보험 증명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주소로 또는 직접 트롬 박스에 넣거나 팩스로 보내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하다. SSA.GOV 웹사이트에서 “Apply Online for Medicare Part B During a Special Enrollment Period”으로 접속한 후 CMS-40B와 CMS-L564를 작성하고 그룹 건강

보험이 있었다는 기타 증명 서류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CMS-40B와 CMS-L564를 작성할 때 파트 B를 원하는 날짜를 적어 넣는다. 직장 확인서인 CMS-L564의 B섹션은 직장에서 작성해 서명해 줘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신청할 때는 직장이 아니라 신청자가 스스로 작성해 직장 서명 없이 보내게 된다. 이때는 건강보험료를 냈음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 월급 명세서, 유효 날짜가 찍힌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입증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 오리지널? 어드밴티지 파트 C?

일단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고 소셜시큐리티 국으로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면 연방정부 운영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파트 B)에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약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파트 D는 약품을 커버해주는 보험으로 63일 동안 약 보험이 없다면 다음 가입할 때 전국 평균 파트 D 플랜 비용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를 100% 커버해 주지 않고 80%만 혜택을 제공한다. 나머지 20%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거나 중병 치료를 받는다면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메디캡 보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 캡 보험은 파트 C, 파트 D 처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판매한다.

이 보충보험은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입해 주지는 않는다. 또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보충 보험을 구입할 수 없다.

파트 B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가입자의 병력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가입 신청을 받아 준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어 가입이 거부되거나 혜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 기다리는 조건부 가입을 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 B에 가입하는 SEP 기간 중에도 메디캡을 6개월 내에 병력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메디캡 가입 보험료는 최고 250달러(나이에 따라 다름)로 비싸다. 파트 B, 파트 D, 메디캡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므로 월 400달러 이상의 비용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일부 메디캡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다. 경쟁이 심한 대도시 지역은 보험료가 ‘0’ 또는 거의 없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 침술, 안경, 보청기, 치과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요즘 신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60%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는 파트 C를 택한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 소셜 연금 등 비근로 소득 841달러 넘으면 SSI 자격 없어



월 최고 794달러에 주정부 보조(가주 160달러) 추가 지급  
거주 주택, 자동차는 재산 목록 포함 안돼  
영주권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 40크레딧 있어야

미국 은퇴자들이 '돈 없어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났어도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가난의 범주에서 살고 있는 은퇴자 또는 장애인들에게 생활보조비를 제공한다. 이를 '보충 소득 보장'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는 '웰페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SSI는 재산이 한정된 65세 이상 가난한 은퇴자 또는 일을 못하는 신체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보충 소득이다.

은퇴를 하면 그동안 꾸준히 연방정부에 냈던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따라 정부로부터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등 소셜 베니핏(SSA)을 받는다. 이 SSA는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은퇴 후 돌려받는 것이지만 SSI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SSA 금액이 기준선 이하로 낮을 때 제공되는 일종의 구호 기금으로 보면 된다. 재원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아니라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900여만명이 이에 의지해서 산다.

### 수혜 자격

재산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또는 시각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자, 그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대상이다. 또 중병으로 지난 1년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돼 죽음이 임박 했어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2021년 최고 개인 794달러, 부부 1,191달러이지만 생활비가 비싼 주들은 추가로 보조해준다. 추가 보조금은 주별로 모두 다르고 아예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극빈층 은퇴자들이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소득이 있거나 가족이나 친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제해져서 지불된다.

캘리포니아는 160달러를 추가해 개인 954.72달러를 지불하며 부부는 407.14달러를 보탠 1,598.14달러를 받는다. 캘리포니아 거주 시각 장애인은 개인 1,011.23달러로 조금 높으며 부부는 1749.19달러, 또 신체 장애자는 65세 극빈층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애리조나, 미시시피, 노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마리아나 아일랜드령은 추가 지불을 해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주정부 자체 보충 소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도 있다.

### ▲수입과 재산 정도

수입은 급여, 소셜시큐리티 연금, 펜션 등을 말한다. 또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조달해주는 음식이나 주거지도 수입에 포함된다. 수입 기준은 각 주정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 빈곤선 100%나 135% 이하의 수입자를 SSI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방 빈곤선 기준 이하라고 해서 앞에 서술한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조금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프리미엄 news  
usmetronews.com

액을 공제해서 주기 때문이다.

SSI는 수입원을 근로 소득과 비근로 소득 2가지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로소득이란 급여, 자영업자 순수익, 판권이나 저작권료, 사례비,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에서 받은 돈이 이에 속한다. 비근로 소득으로는 일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소셜 연금, 종업원 상해보험 보상금, 일정 재향군인 보상금 또는 연금 지불금, 실직수당, 연금, 가족의 지원금, 어뉴티(연금 보험), 렌트 수입 및 기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수입이 해당된다.

2021년 기준으로 SSI를 받으려면 비근

로 소득이 월 814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부부는 1,211달러 이하다.

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은 SSI 자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국은 SSI 수혜자들에게 월 1,673달러, 부부 2,467달러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허용한다.

물론 실제 SSI 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씨가 한달 1,600달러를 번다면 첫 85달러를 공제해주고 1,515달러만 번 것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절반인 757.50달러 뺀 금액으로 SSI를 계산하는데, 이 금액은 연방 SSI 금액 794달러보다 낮으므로 철수씨는 SSI 자격이 된다. 따라서 철수씨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개인 최고 SSI금액 794달러에서 철수씨의 월 수입 757.50달러를 뺀 36.50달러를 매달 SSI로 받는다.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주에 산다면 이 금액에 추가 지원금이 보태져 월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SSI 장애인 수혜자들에게 가능한 일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근로 소득을 많이 벌지 못한다. 장애인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월 1,310달러 이상의 수입을 번다면 SSI를 받기 힘들 수 있다고 소셜 시큐리티국은 밝혔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돼 근로 소득 2,190달러 이하면 SSI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유재산 정도

부동산, 은행 어카운트, 현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재산 정도를 측정해 자격을

결정한다. 이런 재산이 개인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는 3,000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주택이나 땅,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자동차, 자신 또는 직계 가족을 위한 장례 보험, 액면가 1,500달러 이하의 장례비용 및 배우자 장례비용(각각)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SSI를 받으려면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구권자여야 한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미국에 도착한지 5년이 지나야 하며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신 또는 배우자가 40 근로 크레딧을 가져야 한다. 또 망명 신청자 등 기타 조건에 충족된 사람들도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연금이나 기타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 신청해야 한다. 노숙자들도 수혜 대상이며 16명 이하 수용 공공 시설에 거주해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감옥이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면 SSI를 받지 못한다.

특히 공공 또는 사설 보호시설(양로시설 등)에서 살고 있고 극빈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한다면 약간의 SSI 혜택을 받는다.

### 신청

소셜시큐리티국을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해야 한다.

온라인 [www.ssa.gov/applyforbenefits](http://www.ssa.gov/applyforbenefits)이며 1-800-772-1213로 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최대 금액

62세 1959년생 2,324달러  
 66.2세 1955년생 3,148달러  
 70세 1951년생 3,895달러



월) 최대 3,148달러까지 받는다. 만약 1959년생이 올해 62세가 되는 달에 연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2,324달러를 수령한다. 월 3,000달러 이상의 연금을 받으려면 만기 은퇴 연령까지 기다려야 한다. 70세 되는 연금 수령자의 최대 수령액은 3,895달러로 늘어난다.

### 계속 고소득을 올린다.

은퇴후 최대 소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일하는 동안 계속 고소득을 올려야 한다. 최근의 예를 들면 최소 6자리수 이상의 돈을 벌어야 최대 연금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최대 소셜 연금에 필요한 최대 과세 수입은 14만2,800달러다. 이 금액 이상은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14만2,800달러까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더이상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없다. 이런 이유로 소셜 연금도 나이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정돼 있다. 아무리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IRS에서 더 이상 세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후에도 세금을 거둔 만큼만 돌려주기 때문에 최대 연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과세 금액은 매년 올라간다. 2020년에는 13만7,700달러까지 과세 소득이었고 2010년에는 10만6,800달러까지였다.

이보다 10년 앞선 2000년에는 7만6,200달러까지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고 1985년에는 3만9,600달러가 최대 과세 소득이었다.

직장인은 수입의 6.2%를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내고 여기에 고용주가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준다. 물론 직장인의 수입에 따라 실제 세금 액수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최대 금액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세금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야 은퇴후 연금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고용주 모두 해당하므로 12.4%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 35년간 세금을 최대한 낸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35년간 정부에 보



고하는 과세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35년을 채우지 못하고 30년만 과세 소득을 보고 했다면 나머지 5년은 '0' 점 처리돼 연금을 최대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소셜 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윌리엄 메이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전략 웹사이트 운영자는 “감원을 당했거나 일을 중단한다면 이런 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소셜 연금에 영향을 준다”며 꾸준한 근로와 세금 납부를 강조했다.

그러면 35년 이상을 일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40년 일을 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은 40년 중 가장 수입이 높은 35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월 평균치를 낸 후 소셜 연금 액수를 결정한다. 과거 수입이 지금보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낮을 것이다. 이를 소셜시큐리티국은 인플레이션 비율을 감안해 평균 수입으로 재 조정해 계산하므로 금액이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인플레이션 비율은 60세까지만 조정된다.

22면에서 계속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물가 연동치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매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조금씩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2021년 받을 수 있는 나이별 최대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1년 미국 소셜 연금 연평균 지급 금액은 1,551달러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월 3,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9%) 최대 3,895달러까지 연금을 받는다. 물론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2021년 62세가 되는 1959년생의 최대 소셜 연금액은 2,324달러이고 만기 은퇴 연령 66.2개월이 된 1955년생은 최대 3,148달러, 70세의 1951년생은 최대 3,895달러를 받는다.

그렇다고 누구나 나이별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셜 연금을 최대 금액까지 받으려면 젊어서 수입을 숨기지 말고 열심히 세금을 최대로 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35년동안 열심히 내야만 최고 연금 수령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설명할

때 항상 강조 되는 부분이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라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은퇴 후 평생 받는 미국 정부 보장 연금이다. 조금내면 조금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은퇴 후 안정된 수입으로 잘 먹고 잘살려면 소셜 연금을 최대한 많이 내라는 것이다.

다음은 소셜 연금을 최대 금액까지 끌어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다.

### 70세부터 소셜 연금을 받는다

70세 미국인들의 최대 연금 액수가 3,895달러라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70세에 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 금액을 받지는 못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셜 연금은 연금을 받는 나이와 과세 기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62세부터 받지 않고 70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21년 만기 은퇴연령(FRA·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는 1955년생이 연금을 신청하면(66세 2개



# 유언장은 법원 '프로베이트' 거쳐야 집행 가능

미성년자녀 있다면 유언장으로 보호자 지정  
세금, 소송 막으려면 '변복 불가능' 트러스트 개설  
재산 많다면 유산 계획 미리 세워라

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크고 작은 부를 축적한 한인들이 많다. 집도 있고 또 번듯한 부동산, 은퇴 연금, 생명보험 등등 거부는 아니지만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큼의 쓸쓸한 재산들 말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만 그렇지 혼자 다 쓰고 가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 무언가 자손들에게 남겨 주고 싶은 것이 이민 1세들의 마음일 것이다.

자손들을 위해 무언가 물려주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언장은 작성했는지, 재산을 신탁(트러스트) 구좌에 넣어 법적 절차 없이 물려줄 수 있는지 등등.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 유언장(will)

유언장은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이나 장례 등등 모든 처리 절차를 지시하는 서류다. 유산 정리 서류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유언장을 통해 돌봐 줄 보호자를 지정해 둘 수도 있다. 유언대로 재산을 정리해줄 집행인(executor)을 정한다. 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멋지게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할 게 있다면 세금 납부 방법도 지시해 둘 수 있다. 유언장 작성자가 숨지면 집행인이 부채나 세금을 정리해주고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게 된다.

그런데 집행인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하지 못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불리는 유언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장이 진실 인지를 먼저 가리는 작업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돈도 많이 든다.

만약 유언장에 집행인이 지정돼 있지 않다면,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이 임의로 집행인과 보호자를 정하게 된다. 생면 부지의 사람이 자녀들의 보호자로 나서는,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6,250달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의 차이	변복 가능 신탁재산 (Revocable Living Trusts)	유언장 (Will)
재산 수혜자 지정	가능	가능
어린 자녀에 재산 양도	가능	가능할 수도
서류 변경	가능	가능
프로베이트 피하기	가능	불가능
사망후 내역 보호	가능	불가능
공증	필요	필요없음
재산 이전	필요	필요없음
법정 분규 막음	가능	불가능
후견인 지정 회피	가능	불가능
자녀 위한 가디언 지정	불가능	가능
자녀 부동산 관리 매니저 지정	불가능	가능
유언 집행자	필요없음	필요함
세금, 부채 처리 방법 지시	안됨	됨
작성이 쉬움	쉽지 않음	쉬움
증인	필요 없음	필요함

러까지의 재산은 상속인이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서약서 작성 또는 약식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상속될 수 있다.

유언은 구두 작성도 있지만 유언자가 서명한 서류로 해야 말썽의 소지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증인을 할 수 없다. 만약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작성했다면 주에 따라 증인 없이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유언장에 공증까지 받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증이 필요 없고 공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앨버튼 데이비슨 법률 그룹' 이 조언했다.

## 생존 신탁(living trust)

글자 그대로 살아 있을 때 개설해 즉시 발효되는 재산 신탁을 말한다. 모든 재산을 신탁할 수 있지만 현금을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러스트는 유언장처럼 재산을 넘겨줄 수혜자(베니피셔리)를 지정하는 서류로 생각하면 된다. 트러스트 재산은 법원의 공증(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법원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된다는 말이다. 다만 리빙 트러스트 개설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수월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리빙 트러스트에는 재산 집행관을 지정해 둘 수 없다. 또 자녀들을 위한 보호

자도 지정할 수 없다. 자녀들을 위한 보호자나 재산 집행관을 두려면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 뒤야 한다. 보통 리빙 트러스트를 개설할 때 유언장도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에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수혜자가 됐다면 성인이 돼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있을 때까지 신탁 관리자(트러스티 매니저)가 맡아 관리한다.

신탁 가능한 재산으로는 ▲집 포함 부동산(값야아 할 모기지가 있어도 관계없다) ▲주식, 채권, 기타 브로커 관리 투자 계좌 ▲소규모 비즈니스 지분 ▲특허권 및 판권 ▲귀금속 ▲값나가는 미술품, 가구, 골동품 ▲수집 우표, 동전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내용 변복이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와 변복이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로 나눌 수 있다. 변복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혜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마음대로 내용을 수정, 변경 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위탁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트러스트에 넘겨주고 재산과 트러스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단체 등이 세금과 소송 면피용으로 많이들 사용한다.

## 주요 차이점

트러스트를 보통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신탁한다고 해서 '리빙 트러스트' 라고 부른다.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맡기면 즉시 트러스트에서 재산을 관리한다. 반대로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은 집행되지 않는다. 유언장 내용은 유언자의 사후에만 집행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유언장은 법원의 실효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트러스트는 이런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신탁 설정자가 죽으면 법원 검증 절차 없이 신탁된 유산은 수혜자에게 분배되거나 관리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예를 들어 25세, 30세 등등) 자녀의 몫을 신탁 어카운트에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분배해 줄 수도 있다. 특히 신탁 재산을 자녀 또는 손주들의 건강, 교육으로만 국한해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상속받을 자녀들이 미달지 못하다면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묶어 둘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존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치료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017·2018·2019·2020년  


---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칼 그룹**  


---

**BEST 4년 연속 선정**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배우 이순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 메디케어 HMO**

미주 전국 9개 지역의 4200명 의사 선생님들께서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 페이스북 등 SNS 통해 가족 정보 찾아 범행 이용

## Cover story 보이스 피싱

자녀, 손주 사칭하며 다급하게 돈 요구  
선물 카드, 송금 업체 통해 돈 달라면 100% 사기  
응급 상황이라고 다그쳐도 전화 끊고 사실 확인부터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정보를 알아낸다. 특히 손주들이 올려놓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나 나이 또는 습성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 사기범들은 주로 늦은 밤 전화를 하는 성향이 높다. 전국 소비자 연맹은 나이드신 사람들은 밤 시간대 전화를 받으면 더 혼란스럽고 판단도 늦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추적이 어려운 기프트 카드, 선지불 카드, 또는 송금 업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100% 사기로 보면 틀림없다. 최근에는 집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 가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

### 아들 사칭 A 씨의 사례

지난 5월 10일 아침 일찍 시애틀의 A 씨에게 LA 직장 다니는 아들을 가장한 사기범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사기범은 케이스 번호까지 주며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지금 감옥에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전화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야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다급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변호사를 사칭한 남성은 “아들이 알코올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임신 6개월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받아 현재 감옥에 있다. 9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그중 9,500달러만 내면 일단 풀려날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그는 상대방이 임신 중인 여성이어서 보석금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빨리 빼내야 한다고 재촉했다.

당황한 A 씨는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말을 믿고 아들에게 전화 확인할 생각도 못했다. LA 최고 음주 전문 변호사를 사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LA 지인 등을 통

해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A 씨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아들이 A 씨에게 줬다는 케이스 번호나 이름, 생년월일로도 체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LA에 있는 A 씨 아들과 통화해 보이스 피싱임을 알게 됐다. A 씨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아들이 어떻게 LA에서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과 내 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무섭다”고 말했다.

### 사위 사칭 B 씨 사례

LA 사는 B 씨는 한국에 있는 엄마로부터 “사위에게 보낸 사업 자금 500만 원을 잘 받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무슨 영문인지 물었더니 엄마는 “사위가 전화로 자금이 부족하니 급히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못 받았느냐”는 것이다.

한 번도 돈 달라고 해본 적 없는 사위가 왜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화를 냈지만 한국에 있는 엄마는 이미 피해를 당한 후였다.

B 씨는 엄마가 자주 통화할 기회가 없는 사위 목소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엄마 전화 번호를 알았고 또 남편이 사업하는 줄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 한국 금융 범죄 수사 검사 사기 사례

LA에서 자영업 하는 C 씨는 지난 연말 한국 검찰 금융 범죄 수사국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아침 일찍 다운타운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C 씨에게 “LA 은행 구좌가 국제 돈세탁에 이용돼 은행 구좌를 확인해야 하니 구좌 번호를 달라. 아니면 한국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당황한 C 씨는 범인의 지시대로 차를 타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화를 끊어버려 화를 면했다. C 씨는 “평생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한국 검사라고 전화를 해 매우 당황했다”면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름과 은행 구좌를 대라고 해서 자칫 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 IRS 사칭 피해 D 씨 사례

오렌지카운티 브레아의 D 씨는 IRS 수사관 사칭하는 범인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체포될 수도 있으니 당장 전화 끊지 말고 가까운 세븐 일레븐 스토어에 가라. 구글 게임 카드 500달러 4장을 사서 번호를 불러 세금을 내라”는 지시에 500달러를 사기당한 케이스.

두 번째 게임 카드 번

**노인 사기 유형**

- 로맨스 스캠**  
데이트 상대를 빙자해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는다
- 기계 수리 스캠**  
케이블 회사나 전화 등 시설 회사 직원을 사칭해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 조부모 사기**  
거짓 자녀 또는 손주들의 긴급 상황을 가장해 돈을 뜯는다
- 공무원 사칭 사기**  
경찰, 수사관 등 공무원을 사칭해 체포 또는 기소를 내세워 협박한다
- 로또 당첨 사기**  
로또에 당첨됐거나 자선 행사에서 선물이 당첨됐다는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 광고 사기**  
리버스 모기지 알선 크레딧 교정 등 허위 광고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다

호를 불러주던 D 씨는 뭔가 수상해 전화를 끊고 세븐 일레븐으로 달려가 카드를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불러준 카드는 회수가 불가능했다. 그나마 업소와 구글의 협조로 나머지 3장의 카드는 환불받았지만 D 씨는 아직도 약이 올라 밤잠을 설치곤 한다.

D 씨는 “한 친구가 세금 문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겁이나 전화를 들고 끌려다니며 당했다”면서 “당황해 아무 판단도 못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 방지 대책

FTC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분이 노출돼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가족 관계, 개인 정보 등의 공유를 극히 제한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사기는 범죄이므로 어떤 종류의 사기전화라도 ReportFraud.ftc.gov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FTC는 2020년 한해만도 210만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금 업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빨리 이 회사 핫라인(800-448-1492)에 신고해야 한다. 또 머니 그램으로 보냈다면 핫라인(800-926-9400)에 신고한다. 아직 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

### ◇해야 할 일

소셜 미디어에 가입했다면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보안 세팅(프라이버스 세팅) 해둔다. 사기범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가족의 정보를 찾는다.

전화를 받았다면 손주의 첫 애완견 이름이나 종류같이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진짜 손주인지 신분을 확인한다. 아무리 다급하게 재촉해도 일단 전화를 끊고 손주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사기범들은 급박한 상황 연출이나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 확인을 못 하게 한다.

경찰, 변호사, 의사라고 말한다면 우선 관계 부서나 병원 등에 전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한다. 무엇보다 본능에 충실한다. 뭔가 이상하면 분명 이상한 것이다.

### ◇하지 말아야 할 일

걸려온 전화가 낯익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FTC는 조언했다. 사기꾼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뢰 가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속일 수 있다.

절대 정보를 미리 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야 할머니”라고 전화를 한다면 절대 손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 안 된다. “아무게니?”라고 말하는 순간 손주의 이름이 노출된다. 상대방에서 이름을 말하기 전까지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다급하게 말해도 같이 다급해하면 안된다. 한 박자 쉬어 대답해라.

절대 현금이나 송금 또는 기프트 카드, 현금카드의 번호를 불러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재는 추적이 매우 어렵다.



# ‘뜨거운’ 주택 시장 ‘차가운’ 머리로 명철한 판단

요즘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매물은 부족하고 모기지 이자율은 낮고 구입을 원하는 바이어는 많아지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뜨거운 주택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냉철한 판단으로 주택을 지금 꼭 구입해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하는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앨버트 리 부부는 보스턴 지역에 지난해 12월부터 집을 사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좀 더 큰 공간의 주거지를 찾아 나선 이들 부부는 돈을 더 들여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앨버트는 “이건 주택 시장이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서 “에이전트들이 말하기를 어떤 주택은 오피스만 80개가 들어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물 주택은 전년 동기에 비해 28.2%가 줄었다. 반면 초저금리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 행진하고 있다.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리얼티 어스틴’의 데이비 바레라 브로커는 이런 현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셀러의 제시가격보다 10만 달러 이상을 오피스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수영장 달린 주택은 제시 가격보다 무려 50만 달러를 더 오피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특히 절제가 필요하다. 원래 예산보다 더 높은 집을 꼭 사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냉정하게 생각해야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대출

주택 구입하려면 수입과 지출 등 고려해야  
경쟁에 밀려 감당하지 못하는 실수 말아라  
모기지 상황 유예 끝나면 가을부터 매물 늘듯

금인 모기지 페이먼트(상환금)가 총 월수입의 1/4에서 1/3 사이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에 주택 관리비용과 세금, 보험까지 합친다면 총수입의 35~45%가 적정선이다.

새라 베어 샌프란시스코의 재정 어드바이저는 “균형 투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에 모든 돈을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만약 연 10만 달러의 수입이라면 크레딧 카드빚 변제나 은퇴 대비 저축 등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로 한 달 2,340달러 안팎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주택 구입 비용이 융자금의 2~5%는 들어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한 대출 회사들이 지금은 ‘부채 대 수입’ 비율만 엄격하게 따진다.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고 관리할 능력에 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피터 도니사뉴 프랭클린 메디슨 어드바이저 그룹의 수석 자문은 “무엇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대출 환경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총수입의 50%까지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회사도 있다”면서 “이런 돈을 빌려 준다고 해서 꼭 받아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대비용 감안해야

다운페이먼트는 주택 가격의 20%가 표준이다. 그러나 꼭 20%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 이하의 다운페이먼트를 한다면 모기지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비용은 모기

지 10만 달러 당 월 30~70달러라고 연방 모기지 회사 프레디 맥이 밝혔다. 모기지 보험은 구입한 주택의 에퀴티(순수 가치)가 주택 가격의 20%를 넘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주택 수리, 개량 등에 필요한 여분의 현금이 6개월 치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베어 어드바이저는 주택을 구입하면 종전에 즐기던 생활 습관을 많이 수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면서 하와이로 휴가를 포기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잘 고민해서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 구입을 미룬다

예를 들어 텍사스 어스틴 같이 직장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경쟁도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1~2년 기다리다 보면 주택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피스 경쟁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합리적인 선에서의 주택 구입도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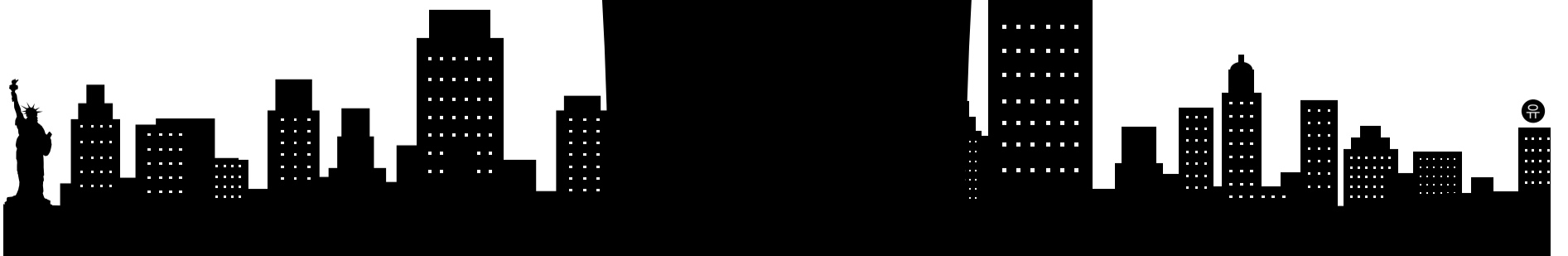
마이애미에 있는 모기지 대출 회사 리전 스텐 은행의 애니발 토레스는 올여름 팬데믹으로 인한 모기지 상황 유예 정책이 끝나면 더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니사뉴 수석 자문은 “주택 가격은 분명 수개월 동안 더 올라갈 것이지만 모든 시장 경제로 볼 때 주택 가치가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지금 주택 구입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장단점을 잘 분석해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크레딧 카드 부채나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요즘 뜨겁게 달아오는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넷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 지역 소득 중간치 80% 이하, 시니어 아파트 입주 가능

총 수입 30%까지 저렴한 렌트비 공급 부족해 7~10년 대기 보통

많은 독자들이 노년아파트(시니어 아파트)에 대해 문의한다.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며 또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입이 얼마나 돼야 하고 또 렌트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62세(55세 이상도 있음) 이상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자격 있는 합법 이민자, 장애인, 장애인 자녀가 입주 대상이며 수입은 지역 소득 중간치의 최고 80% 이하면 가능하다.

## 저소득 시니어 하우스(저소득 노인 아파트·Low Income Senior Housing)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소득이 적어 비싼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카운티, 또는 시 정부가 입주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해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배려해주는 시설이다.

미국 곳곳에 연방 정부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들이 지은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와 일반 개발자가 지어 HUD의 지원금을 받는 시니어 아파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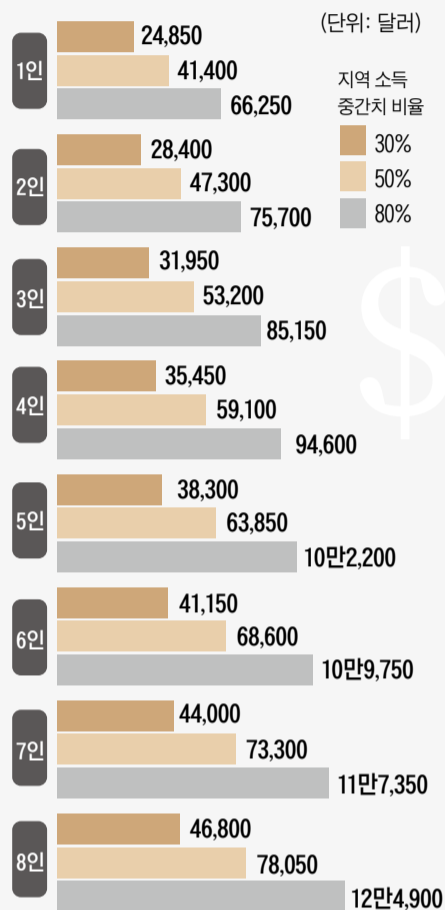
전국 노인카운슬(National Council on Aging)에 따르면 미국인 60세 이상 2,500만명이 빈곤속에 살아가고 있다. 60세 이상 개인 연소득 3만달러, 월 2,450달러 또는 하루 80달러 수준이면 빈곤 노인층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SSI나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인 연방 빈곤선 보다는 높지만 시니어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입이 있어야 주거지도 마련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시니어 대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살아간다. 연방 '예산 및 정책 우선 센터'에 따르면 시니어 97%가 소셜 연금을 받거나 받게 될 것이며 43%는 소셜 연금만 가지고 살아간다. 부부는 21%가 소셜 연금에 의지해 산다. 2021년 기준으로 소셜 연금 평균은 1,543달러다. 이는 빈곤 노인들의 연소득 절반에 그치는 수입이다. 이 수입으로는 음식과 의복, 교통 및 기타 중요한 주거비를 제대로 조달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방 HUD가 저소득 시니어 하우스(아파트)를 개발해 시니어들의 주거 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LA 지역 HUD 보조 받기 위한 수입 자격 (단위: 달러)



일반적으로 LA시내 HUD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거(아파트) 단지 유닛에 입주하기 위한 가족 수 별 수입 한계. 그러나 실제 수입 한계는 각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다.

LA 한인타운 인근 인기 시니어 아파트 명단

아파트	전화번호	주소
McArthur park tower	(213)382-8395	450 S. Grand View St., LA CA90057
Union Ferraro Tower	(213)483-7535	455 S. Union Ave., LA CA90017
Las Torres	(213)388-0315	944 Grattan St., LA, CA90015
Independent Square	(323)730-2920	2455 S Saint Andrews Pl, LA, CA 90018
Olive Street Apt	(213)689-4868	740 S. Olive, LA CA90014
Vista Tower	(213)386-2786	3000 Leeway Ave., LA CA90005
Berendos	(213)487-2021	421 S Berendo St, LA CA 90020
Arirang Korean Apartment	(323)871-2116	1715 Whitley Ave, LA, CA 90028
Pilgram Tower	(626)300-2440	1207 S. Vermont Ave, LA CA90006
Park View Terrace Apts	(310)204-2050	2451 W. 7th St. LA CA90057
Mariposa Manor	(213)385-0340	756 S. Mariposa Ave., LA CA90005
St. James Manor	(562)704-0080	615 S. Gramercy Pl, LA CA90005
Wilshire Tower	(310)847-7737	616 S. Normandie Ave., LA CA 90005
Angelus Plaza	(562)257-5120	245 S. Hill St., LA CA 90012
Angelus Plaza II	(562)257-5120	200 S. Olive St., LA CA 90012
Wilton Wilshire Arms	(310)204-2050	3966 Wilshire Blvd., CA 90010
615 Mahattan	(949)873-4200	615 S. Manhattan Pl., LA CA90005
Tokyo Tower	(213)622-3076	455 E. 3rd St., LA CA 90013
Sangnok Villa	(213)484-0673	732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Knob Hill Apt	(213)380-8100	2403 W. 4th St., LA CA90057
Adams Senior Housing	(310)477-4942	1921 W. Adams Blvd., LA CA 90018
New Hampshire Arms	(310)204-2050	819 S. New Hampshire Ave., LA CA 90005
Hancock Gardens Apts	(310)820-4888	303 S. Van Ness Ave., LA CA90020

자세한 LA 카운티 시니어 아파트 명단은 <https://housing.lacounty.gov/SeniorHousing.html>을 통해 알 수 있다. 렌트비와 현재 신청 접수 여부 등을 상세히 볼 수 있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 바로 'Find Senior Housing' 을 클릭하고 원하는 방과 지역 등을 선택해 'CLICK HERE TO SEARCH' 를 누르면 정보가 나온다.

## 자격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는 수입, 장애,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등 합법 거주자가 입주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도 제공한다. 이곳은 꼭 시니어만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HUD가 제공하는 주거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우스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과 섹션 8아파트로 불리는 공공 주거지다. 흔히들 하우스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 ◇하우스 초이스 바우처(주거 선택 바우처)

HUD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정의 렌트비를 내는 방식과 HUD가 승인한 주거시설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사는 방법이다. 두 시설 모두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한다.

### ◇섹션 8 또는 하우스 프로젝트

HUD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 단지다. 시니어뿐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입주 가능하다. 시니어라면 시니어용 저소득 섹션 8아파트를 찾아야 하는데 시니어 섹션 8아파트 입주자 80%가 50세

이상이다. 나머지 20%는 젊은 층이나 자녀 있는 가정의 입주자.

## 수입기준

HUD가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스에 입주하려면 나이와 수입이 증명돼야 한다. 은행 잔고증명서, 소셜 연금 또는 SSI증명서(소셜 오피스 발행), 연방 세금보고서, 자녀의 지원이 있다면 입증 편지 등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수입 기준은 미국 전체를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지역의 카운티 또는 시의 소득 중간가의 80% 또는 50%(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2021년 소득 중간가는 8만달러로 HUD기준에 따라 80%에 해당하는 개인 66,250달러 이하면 HUD 지원 시니어 아파트 입주 자격이 된다. 부부면 7만5,700달러 이하다. 저소득도 3가지로 구분해 계산한다. 국민(중간 소득의 30%), 저소득 중간층(50%), 저소득 상위층(80%)으로 나뉘어 렌트비 보조금이 달라진다.

2021년 소셜 연금 평균치 1,543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HUD는 월 400달러

를 생활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수입에서 제하면 1,143달러가 남는다.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HUD 보조를 받아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정부는 수입이 중간 소득의 50%이하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주자의 75%는 중간 소득의 30%가정이어야 한다.

렌트비는 수입의 30%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월 350달러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우편번호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렌트비는 원하는 아파트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신청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는 자신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받아 접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데다가 하루 1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고, 아파트 공급까지 부족해 신청 후 입주까지 7~10년은 기다려야 한다. 운 좋게 또는 한인들이 흔히 쓰는 불법 '돈주고 들어가기'로 1년안에 입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22면에서 계속  
 존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은퇴 부부 의료비용 20년 동안 두배가량 증가

## 여성 15만7천달러, 남성보다 많아

미국인 66%는 의료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미국 심리학 협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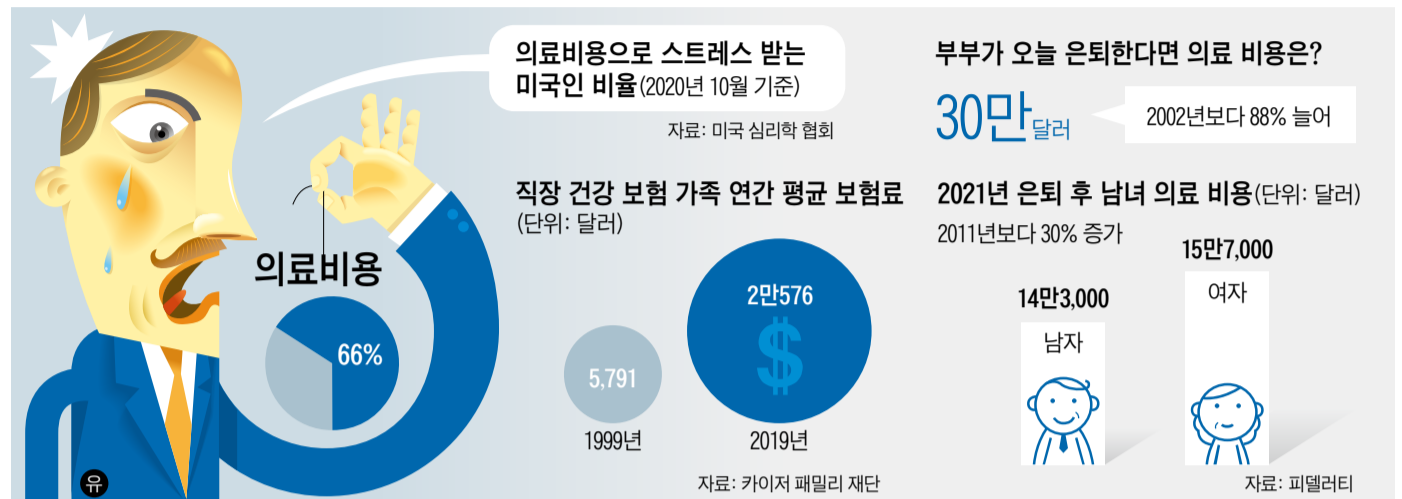
투자회사 피델리티의 또다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오늘 은퇴한다면 의료 비용으로 30만달러는 필요하다. 이는 2002년보다 88% 늘어난 금액이다. 20년만에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료비용이 저렴하지는 않다. 또 여성은 비용이 더 든다.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피델리티는 2021년 은퇴 후 의료 비용으로 남성은 14만3,000달러, 여성은 15만7,000달러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예측은 10년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그 짧은 기간동안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우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이다. 하



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이익 추구' 모델에 따라 그리고 소비자 지출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1999-2019년 기간 중 직장 건강 보험 가족 연간 평균 보험료는 5,791달러에서 2만5,766달러로 꺾중 뛰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또다른 질문이 생긴다.

65세가 넘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메디케어가 의료비를 감당해 주지 않는다는 질문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 부부가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에 가입하고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 의사 방문, 실험실 테스트, 물리 치료 등은 커버해 주지만 의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정기 발 진료, 특히 장기 간병 비

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지금 은퇴하는 미국인들은 스스로 건강 비용을 충분히 모아둔 것이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 개인 은퇴 연금이나 직장 은퇴 연금 플랜, 건강보험 저축 플랜 등을 적극 활용해야 30만달러가 넘게 드는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 강산이 변해도 JAY PARK은 변함이 없습니다

메이저보험회사와 비교한 저렴한 플랜

**LA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개인 / 상업용)**  
사고 잦은 운전자, 음주운전 위반자, 초기 이민자, 초보운전자  
패밀리 멀티플랜 완비(2인 이상) 사고 시 신속 처리

**OBAMA CARE(오바마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365일 건강보험 전문보험 Agency를 찾고 계신가요?

**Workers Comp(가장 부담 적은 보험료의 종업원 상해보험)**  
고객도 좋고, 매상도 떨어지는 불경기에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한 종업원 상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35년 보험전문인 JAY PARK이 자신 있게 소개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개인, 그룹)/사업체 자동차 보험

“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의 LOW 를 만나세요  
”

월서 **JAY PARK 종합보험**  
WILSHIRE JAY PARK INSURANCE AGENCY, INC.  
2975 Wilshire Blvd., #608, Los Angeles, CA 90010

CA ins. Lic.#0C84280

월서 JAY PARK 저가(가장싼) 보험의 LOW 보험 TEAM

**213.380.9801**



월서 JAY PARK 종합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http://www.seoulmedicalgroup.com)



## 부인 위한 충분한 재정 준비됐나 점검하라



401(k)에 배우자 지분  
50% 미만은 허용 안돼

IRA는 '유산 받은 IRA'  
구좌 개설이 가장 유리

재산 많지 않다면  
상속세 걱정 않아도 돼

누구나 열심히 일했던 젊은 시절을 정리하며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를 우리는 은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은퇴를 이야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재정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은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죽는다면 남아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 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부부라면,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남은 배우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소셜 연금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들텐데...

아무도 스스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개인 은퇴 연금(IRA)

개인 은퇴 연금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의해 상속되지 않는다. IRA에 지정돼 있는 수혜자에게 전액 넘어간다는 말이다. 유언장에 "IRA는 누구에게 준다"고 써 놓아도 소용없다. 구좌는 IRA에 적혀 있는 수혜자, 즉 '베니피셔리' (beneficiary)에게 간다. 이 수혜자 이름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만약 전부인이나 상속권을 아예 박탈당한 자녀 이름이 계속 수혜자로 되어 있다면 가입자가 죽은 후 IRA 구좌는 그들에게 넘어 간다.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수시로 업데이트 해 두는 것이 좋다. 다음은 IRA를 상속할 때 유족들이 처리할 수 있는 5가지 옵션이다.

### ◇유산 받은

IRA(Inherited IRA) 또는 베니피셔리 IRA 죽은 사람이 가입했던 IRA를 사후 수혜자 이름으로 개설하는 구좌를 '유산 받은 IRA'라고 부른다.

처리 방법은 배우자나 장애자, 미성년 자녀, 고인과 수혜자의 나이 차이가 10년 이하인 경우와 이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나 제 3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유산 받은 IRA' 구좌를 오픈 한 수혜자는 59.5세가 되지 않았어도 10% 벌금 없이 계속 펀드에서 고인이 받았던 것처럼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수혜자가 배우자가 아니라면 원 소유주가 죽은 지 10년 이내에 구좌내 모든 잔고를 찾아야 하고 찾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한다.

세금을 낸 이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ROTH) 계좌를 물려 받는다면 최소 인출 규정, RMD 의무는 없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경우 수혜자가 5년 이내 모든 잔고를 찾지 않으면 그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 ◇IRA 이체(롤오버)

물려 받은 IRA를 수혜자 개인 IRA로 롤오버(이체) 시킨다. 이럴 경우 수혜자의 IRA 계좌가 되므로 수혜자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 인출 페널티를 내야 한다. 로스 IRA는 잔고가 구좌에 5년 이상 유치됐었다면 벌금 없이 수혜자 계좌로 이체된다.

스캇 비숍 공인 재정 플래너는 "배우자가 고인의 계좌를 자신의 IRA구좌로 돈을 모두 이체시켰다면 생존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RMD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더 이상 고인의 계좌가 아니고 이를 받은 배우자의 계좌가 되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

### ◇로스 IRA로 전환

물려 받게 될 배우자가 고소득자라면 잔고를 찾아 쓸 때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이럴 경우 고인의 IRA를 새 로스 IRA 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전통 IRA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전환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낸 후에 로스로 바꿀 수 있다. 일단 로스 IRA로 전환되면 배우자 또는 수혜자가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72세부터 받아야 하는 최소 분배금, RMD의 무도 없다.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다.

### ◇수혜자 권리 포기

수혜자 권리를 포기한다. 지정 폼에 다른 수혜자 이름을 적어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준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 ◇돈 찾기

고인의 IRA 잔고를 한꺼번에 찾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과세 소득으로 잡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CPA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401(k) 플랜

고인의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은 수혜자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플랜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죽게 되면

#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연방정부에 내는 생명보험 역할

## 세금 많이 내면 배우자에 충분한 '생존자 연금' 제공

구좌를 누구 한테 넘겨줄 것인가 (수혜자)를 정하게 된다. 만약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구좌는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넘어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보통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1차 수혜자로 지정해 둔다. 그런데 일단 배우자를 수혜자 이름으로 올려 놓았다가 별거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다고 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 한 법적 배우자로서 수혜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직장 401(k)는 연방 '종업원 은퇴 수입 안정법' (ERISA)에 적용된다. ERISA에 적용되는 직장 플랜은 배우자의 수혜 비율을 50% 이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지혜롭게 이혼하기'의 미셸 부오니콘 트리 공인 재정 설계사는 "이혼을 했다면 수혜자 이름을 변경해야만 사후 구좌가 전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인이 독신이었다면 당연히 구좌에 지정한

수혜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다. 기타 내용은 IRA와 동일하다.

### 상속세

유산에는 항상 상속세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연방 상속세는 2021년 기준으로 개인 1,170만달러 이상에만 적용되며 주정부마다 상속세 기준이 다르므로 재산이 많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시큐리티국은 고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1회에 걸쳐 255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없다면 고인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사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고인의 기록에 따라 매달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서바이버 베니핏' (Survivor Benefit)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연금을 은퇴 후 자신을 위한 펜션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젊어서 일해 정부에 낸 세금은 가족들

을 위한 생명보험 역할도 해 준다.

배우자, 이혼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 부모까지 고인의 세금 기록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하면 어린이 100명당 98명 꼴로 소셜 연금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재정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18세까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풀타임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는다면 19세까지 가능하다. 또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해 계속 장애로 살아가는 자녀에게도 고인의 기록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일정 조건만 맞다면 의붓 자녀, 입양 자녀와 손주 또는 입양 손주까지도 수혜 대상이다.

이혼한 배우자도 고인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거나 고인의 16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존자 연금 계산법

생존자 연금액은 고인이 생존 때 얼마나 많은 소셜 세금을 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가족들도 많이 받

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고 아꼈다면 가족들의 연금 혜택도 줄어들 것이다. 나중에 특히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세금을 아끼지 말고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사람은 연금 하나만 받는다'가 소셜 연금의 법칙이다.

생존 배우자는 우선 고인의 베니핏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바꿔 받을 수 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을 잃은 영희씨는 고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70세까지 수령을 미루고 불려나간 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고인인 남편의 베니핏 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면 말이다.

생존 배우자가 은퇴하면 소셜시큐리티국은 항상 각 개인의 연금 먼저 지불해준다. 만약 고인의 근로 기록에 따른 생존 배우자 연금이 살아있는 배우자 개인 연금보다 높다면 더 많은 쪽 연금을 지불해 준다.

예를 들어 영희씨의 생존자 연금은 월 1,200달러이고 영희씨의 개인 소셜 연금은 600달러라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쪽 연금 1,200달러를 준다. 생존자 연금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안정된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 “한솔 노후 연금 적립 플랜”

은행 CD나 일반 Money Market 저축보다 월등한 Equity Indexed Life와 Indexed Annuity를 소개합니다.

- ✓ Indexed 생명보험으로의 Income, Accumulation, Withdrawal 등에 대한 Tax-free 혜택
- ✓ 높은 Indexed Rates + 각종 Bonus 제공
- ✓ 더 높은 은퇴연금 수익을 위해 Social Security + Indexed Annuity + Indexed Life 등의 종합인컴플랜 혜택
- ✓ 종합 주가지수 하락 시에도 적립금 유지되고 상승시에는 Max cap까지의 적립금 상승의 2중 혜택
- ✓ 100세 건강장수를 위한 장기 간호케어(Long Term Care) 10년후 적립금 원금 보장이나 적립금의 300% 혜택 (예: \$100,000 적립 시 \$300,000 혜택)
- ✓ 생명 보험금 + 은퇴 연금 + Living Benefits (Chronic 질병/ Critical 질병/ Terminal 질병 등)

### 취급상품

- 사망보험금 보장
- Indexed Rates의 은퇴 저축
- 생전 혜택 보장(Living Benefits)

- 개인연금(IRA)
- 회사 연금(SEP IRA & 401K)
- Rollover & Tax 유예

- LTC 플랜(300% 혜택이나 원금 보장)
- 평생 Income
- 뭉돈 저축(Indexed)



Hansol Since 1977 생명/은퇴연금/Medicare/LTC 한솔종합보험(주)

대표전화 (213) 487-4900 | (800) 300-0703

LA주소 3598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04 | OC주소 6301 Beach Blvd Suite 304, Buena Park CA 90621

## 차민영 서울메디컬 그룹회장 “백신 매우 안전”

### 접종률 높이는 게 과제

차민영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사진)이 한인 사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신 일문일답이다.

-한인타운 백신 접종률은 얼마나 되나.  
한인타운 백신 접종률이 56%에 그친다. 예상외의 결과라 조금 당황스럽다. 개인적으로는 이때쯤이면 70% 정도 돼야 한다고 봤다. 전국 성인 평균 62%보다도 낮다. 시



니어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의 접종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과제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마스크 착용도 완화되는데

그렇다. 현재 연방 질병 통제국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까지 만일을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백신을 안 맞을 까봐 마스크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꺼린다는데  
백신은 거의 안전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과학적으로는 백신 맞았으면 거의 안전하다. 나도 화이자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맞은 부위 통증이나 근육통인데 그것도 하루 만에 사라진다.  
-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혈전이 생길 확률은 10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혈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혈전이 생긴다고 해도 금방 치료가 가능하다.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신을 맞아야 팬더믹을 벗어날 수 있다. 12~15세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 가족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자. 매우 안전하므로 맞지 않을 이유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사망률이 10%를 넘는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강력히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25개 주, 백신 접종 성인 50% 넘어

### 대중교통, 병원 및 요양 시설에선 마스크 써야

미 전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일반화되면 팬더믹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CDC는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새 데이터를 통해 워싱턴 D.C.와 미국 25개에서 5월 말 현재 최소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라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저지, 뉴 멕시코, 뉴욕,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메인주는 성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주로 꼽힌다. CDC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62%가 모든 접종을 마쳤다. 반대로 미시시피,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는 성인 접종률이 매우 낮고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로는 현재 미국 인구 61.3%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고 접종을 완전히 마친 비율은 5월 말 현재 50%를 넘겼다. 코로나 19 감염 케이스도 지난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존 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케이스는 전달 평균 대비 57% 하락했다. 또 사망률도 한 달 전에 비해 23% 줄어 들었다.

현재까지 미국은 2차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1차 접종으로 끝나 는 존슨&존슨 백신 3가지만 승인한 상태

다. 화이자 는 현재 12~15세 어린이 백신을 긴급 승인받아 접종 공급 중이다.

CDC는 지난 5월 13일 완전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내 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CDC는 성명을 통해 “과학은 명확하다. 완전 접종을 마쳤다면 염려할 필요 없고 팬더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의사 진료 또는 장기 간병 시설, 버스나 비행기 또는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CDC는 덧붙였다. 또 공항이나 기차역, 감옥, 노숙자 보호소 등에서는 완전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3차 부스터 샷 필요한가

### 면역 기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어 변종 등 예방 위한 또 다른 백신 접종 가능성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기면서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또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 백신이 오리지널 코로나 19 바이러스뿐 아니라 변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팬더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은 아직 이르다. 현재 과학자들은 3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또 접종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감기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접

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면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접종 효과가 평생 가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단지 화이자와 모더나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이후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 확신할 수 없다. 현재 계속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스터 3차 접종이 곧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면역 효과가 줄

어 들면 분명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 일지는 모른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지만 1년 정도 이후로 예상했다. 반면 화이자 CEO는 초기 백신 접종자는 빠르면 9월부터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종이 문제  
변종 출현과 확산이 부스터 샷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변종이 현재의 백신을 피해 간다면 이를 막는 백신을 다시 찾아야 한다.

각 백신 제조사들이 현재 변종에 대한 백신 효과에 대해 임상 실험 중이다.

또 미국 감염병연구소는 존슨&존슨 접종자가 모더나 부스터 샷을 맞아도 되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 백신 접종자 율여름 유럽 여행 가능해져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율여름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외신들은 유럽 연합(EU)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명 관광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27개국이 율여름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EU 대변인에 따르면 모더나, 화이자, 존슨 & 존슨을 포함해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여행 전 최소 14일 전에 모두 마친 관광객은 유럽 일부 지역에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또 더 이상 자가 격리나 출발 전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

# 닫혀 있던 캘리포니아, 6월 15일 전면 개방한다

**백신 접종자 추첨해 10명에게 150만달러씩 제공  
주정부 지침 따를 지는 지역 정부가 결정**

팬데믹으로 끔찍 얼어붙었던 미국이 1차 이상 접종 비율을 5월 말 현재 50%(성인 접종률 62%)를 넘기면서 해빙 무드에 돌입하고 있다. 접종을 모두 완료한 주민 비율도 40%를 넘어섰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뉴욕은 이미 지난 5월 19일 거의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고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 정상 생활에 가까운 전면 개방을 선언한다. 또 디즈니랜드도 주정부 개방안에 맞춰 6월 15일부터 타주 거주자들의 입장도 허용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예산 1억1,650만 달러의 대대적인 '접종자 퍼주기' 전략에 돌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 15일 전까지 백신을 맞는 12세 이상 주민 200만 명에게 1인당 50달러 상당의 선물권을 제공한다. 또 6월 15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각각 150만달러를 준다. 미국 내 주로서는 가장 큰 상금이다. 또 30명에게는 각 5만 달러를 제공하며 추첨은 6월 4일부터 시작된다. 복권은 이미 백신을 맞은 주민들에게도 해당된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2,000만 명의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아직 1,200만 명의 주민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6월15일부터 모든 시설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거리 두기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술집, 식당, 콘서트장, 마켓 등 모든 시설이 오픈된다.

또 백신 증명이나 코비드 19 음성 테스트 기록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업주가 이를 요구할 수는 있다. 초대형 규모의 행사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대처하도록 권고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면 개방 방침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와 기타 수용 시설에서의 거리 두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용 인원 제한은 없다.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은 연방 CDC 의견을 따른다. ▲식당 및 술집, 뷔페식당 규제도 전면 폐지된다. ▲농구 게임 등 5,000명 이상 실내 행사 주최 측은 경기 시작 전 72시간 내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거나 백신 접종이 확인된 관중만 입장시킨다. ▲1만 명 이상 옥외 행사 주최 측은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입장 여부를 판단한다. 비접종자나 테스트를 받지 않은 관람객을 입장시키기로 결정했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권장 사항이다. ▲백신 접종 확인과 테스트 결과 확인 요구 및 권고는 별도의 주 정부 발표가 있을 때까지 10월1일까지 계속된다.

또 여행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비 접종자가 비필수 여행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는 도착 전과 도착 후 바이러스 테스트와 음성 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의 자발적인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5일 이후 주 정부는 미국 내 여행 비 접종자에 대한 자가 격리 권고를 완화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백신 패스포드 발급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가 캘리포니아 지침을 따를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LA 카운티는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전면 개방 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역시 수용 인원 제한 또는 접종 여부에 따라 고객을 제한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화이자 어린이용 백신 효과 100%”

**위험성 낮고 부작용 가능성 적어**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이 공급되면서 12~15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자녀들의 백신 접종 승인을 꺼려하고 있다. 이들 연령대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다음은 미국에 나도는 핫소문에 대한 진위를 인터넷 유력 매체 ‘허프포스트’가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코비드 19는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미국에 나도는 가장 큰 오해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12-15 연령대 어린이 2,2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고 이들 절반은 2번째 샷까지 마쳤다. 결론적으로 부작용은 더 나이 든 10대 및 성인들과 비

슷했다. 접종 부위 통증과 열, 오한 및 두통이다.

성인과 같이 식품 의약청(FDA)는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 CDC는 최근 백신 접종 후 10여 명의 10대들이 심장 염증 증세를 경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지만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어린이 백신은 안전성 검증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 중 일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어린이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5월 말 발표된 초기 임상 데이터를 보면 파이자 백신은 성인보다 10대들에게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100% 효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소아과학회 회장은 성명에서 매우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고무적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비드 19 감염에도 어린이는 중증이 없음으로 백신이 필요 없다.

미국에서 팬데믹 시작 이후 385만 명의 어린이가 감염됐다. 비록 성인보다 심각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일부 감염 어린이에게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이 나타났다. 소아과학회는 “비록 성인보다 심각 정도가 덜 한다고 해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천 명의 어린이가 입원했고 수백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백신 접종은 집단 면

역을 이룰 수 있어 변종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백신은 어린이의 DNA를 변형시키거나 불임을 야기할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은 유전인자를 전달하는 역할의 mRNA를 이용한 제품이다. SARS-CoV-2 바이러스 위에 ‘돌기 단백질’(spike protein)로 불리는 인체 무해한 물질을 만들도록 체내 세포에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몸에 항체가 생성돼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인간 DNA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불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증거가 없다. 반 백신 주의자들의 헛소문이다.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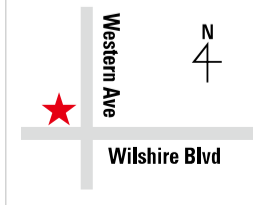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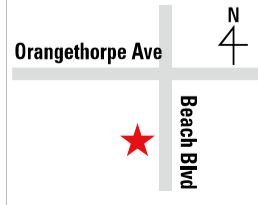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http://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 팬더믹 중 해외여행 한다면 '여행자 보험' 챙겨라

불확실 여행 대비 '보험' 가입 급증  
'어떤 이유든 취소' 플랜 적극 권장  
평균 148달러, 포괄 보험 200달러

팬더믹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 또한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20년 같은 돌발적인 여행 취소 사태를 떠올리며 앞으로의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불확실한 미래의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터넷 유력 매체 허프포스트가 보도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의 에이미 대니스 수석 보험 분석원은 "여행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팬더믹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맞다. 여행은 항상 예측하기 힘들다. 여행을 준비하다가 또는 도중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팬더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꼭 질병뿐만이 아니다. 계획 취소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하며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

보험료 비교 사이트 '밸류 펄크'가 미국 내 50개 이상 여행 보험을 조사한 결과, 평균 148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보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보험도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르다. 포괄적인 보험은 기본 여행 보험보다 평균 56% 더 비싸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 꼭 필요한지 판단

우선 개인의 재정 상황과 여행에 쓸 예산이 보험 구입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대니스 분석원은 "환불이 불가능한 여행 착수금을 냈다면 여행자 보험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국내 여행이고 항공료와 호텔 취소 때 환불이 가능하다면 별로 잃은 것이 없으므로 보험은 필요 없다.

### 커버 되는 내용 확인



여행자 보험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입자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다.

'휴가를 더 즐겨라'의 저자 스킷 키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당연히 보험이 유용하고 보호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진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꼭 작은 글자의 약관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팬더믹이 시작되면서 보험을 구입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소' (cancel for any reason) 플랜을 구입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면서도 비행기표나 기타 예약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런 플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유에서도 여행 취소를 허용한다. '공포'를 느껴도 취소할 수 있다.

팬더믹으로 이 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여행보험사 '세븐 코너스'는 2020년 이 플랜 판매가 2019년에 비해 180% 늘었고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거에는 질병, 부상, 또는 일반 항공기 취소와 같은 이슈들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되는 플랜이었지만 팬더믹 이후에는 여행의 불확실성이 추가되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보험 없이 손실 커버 가능한지 확인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면 커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비행기가 장시간 연착하거나 비행이 취소된다면, 또는 가방을 분실했다면 등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항공사 자체에서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물론 항공사에 요청해야 한다.

또 많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다소간의 여행 보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항공료를 지불할 때 사용한 카드 회사가 만일의 사태를 커버해주는지 확인해 본다. 새 비행기표나 새 가방, 의류 구입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여행자 건강 보험 꼭 가입

여행 보험이 단지 비행기, 호텔 등만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건강이나 팬더믹 기간 중 안전이 우려된다면 여행자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 특히 해외 여행 때는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다.

대니스 분석원은 "해외 여행 때는 여행자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건강보험과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해외 의료 비용을 거의 커버해 주지 않는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기존 병력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커버해주지 않는다.

### 약관 숙지하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숙지해 둔다.

대니스 분석원은 "여행자 보험이 어떤 커버를 해주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여행 취소에서부터 의료비용, 가방 분실, 심지어는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어딘가 고립돼 있을 때의 호텔 방, 식사, 세면도구 등등 필요한 물품 구입비도 보험이 커버해 주

는 경우도 있다.

또 보험회사가 주7일 하루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근처 약국 위치 또는 여권 분실 대처 방법 등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떤 보험사는 식당 예약 같은 위탁 지원도 해 준다.

존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웰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웰빙가이드

고품격 월간 웰빙가이드 US METRO NEWS가 매월 첫째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US METRO NEWS'는 최고급 웰빙 기사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월간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 65세에 10만 달러 연금보험 투자, 월 477달러 받아

## 여성, 수명 길어 연금 액수 줄어 옵션 정보 없다면 심사숙고해야

흔히들 미국인들의 은퇴 후 수입을 다리 3개 달린 등근 의자에 비유한다. 3개의 다리가 탄탄히 버티줘야 넘어지지 않고 평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첫째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고 또 하나는 직장인의 펜션, 나머지는 IRA나 은행 저축금 등, 현금이다. 소셜 연금은 평생 정부가 주는 보험 지불금이므로 죽기 전까지는 끊어질 염려가 없다. 펜션 역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받는 베니핏으로 계속 지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금은 자칫 인플레이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로 인해 오히려 화폐 가치가 줄어 들 수 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누이티' (annuity)라고 부르는 연금 보험 플랜을 구입한다. 소셜연금과 펜션으로 부족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또 하나의 개인연금으로 보면 된다.

어누이티 개념은 이렇다. 목돈을 특정 보험회사에 맡겨 놓고 매달 조금씩 찾아 쓴다. 목돈이 아니어도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낸다. 또는 부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보험료를 낸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목돈으로 또는 월 페이먼트로 돈을 되돌려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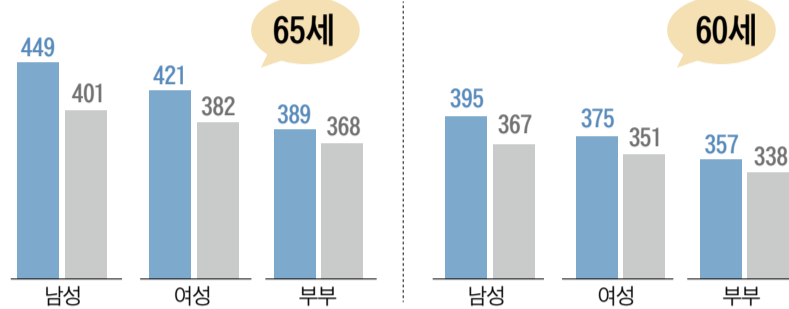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매달 고객들에게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목돈으로 되돌려 줄 수도 있다. 연금 보험의 목적이 은퇴 후 정기적인 월수입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매달 받는 지급 방식이 좋을 것이다.

목돈은 은행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401(K)나 IRA 같은 은퇴 연금이 될 수도 있다.

목돈을 맡긴다면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시불로 낸 돈을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또는 평생 이자와 함께 매달 돌려받는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모기지) 매달 이자와 원금을 합쳐 다시 은행에 돌려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목돈을 맡긴 즉시 찾아 쓰는 방법을 '즉시' 연금(immediate annuity)이라고 부른다.

또 보험료를 일시불로 낸 후 일정 기간 돈이 붙어날 때를 기다렸다가 받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를 '거치' 연금(deferred

나이별 10만 달러 연금보험 가입시 지불금 (단위: 달러)



일러스트 유

annuity)이라고 한다. 이 기간 중 돈을 어디에 투자해 돈을 불러 나갈 것인가에 따라 '고정' 연금, '지수' 연금, '변동' 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 보다는 변동 연금이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이 맡긴 돈을 잘 불러 나가서 고객에게 일부는 돌려주고 나머지 수익은 자신들이 가져가려 할 것이다.

### 10만 달러 맡기면 얼마나 받아

연금 보험에 대한 개요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 번호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돈을 넣고 얼마나 찾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한다.

이에 대해 최근 예비 은퇴자를 위한 어누이티 상품 정보 전문 사이트 '마이 어누이티 스토어'가 미국내 최상위 56개 보험 회사의 300개 상품을 비교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내놓았다.

65세에 10만 달러짜리 '고정 지수 어누이티'에 수입 옵션을 넣어 구입하고 30일 내 페이먼트를 '즉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지불금은 죽을 때까지 매달 472달

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5만 달러 어누이티를 구입했다면 투자금이 10만 달러의 1.5배이므로 월 페이먼트도 1.5배로 보면 된다.

만약 '고정 지수 어누이티'가 아니라 '즉시' 연금 보험을 평생 받는다면 10만 달러 투자했을 때 65세 남성은 월 449달러를 받는다. 65세 여성은 421달러로 조금 낮다.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가입한다면 389달러가 된다. 보통 보험회사는 관리비로 잔금의 1% 가량을 받는다. 10만 달러라면 1,000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입자가 죽고 나면 보험회사에 남아 있는 잔고를 모두 보험회사가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다양한 옵션으로 남은 돈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수혜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옵션을 넣으면 당연히 월 지불금이 줄어 들 것이다.

앞선 예에서 남성이 10만 달러 내고 평생 449달러는 받는다는 '라이프' (평생) 옵션은 남편이 죽으면 나머지 잔고는 보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데 평생 받지만 남은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옵션 '캐시 환불

라이프' (LIFE WITH CASH) 옵션으로 구입한다면 이 남성은 월 401달러로 48달러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이 금액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미국 내 A+ 보험 회사의 즉시 연금 보험 상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60세에 10만 달러를 넣고 즉시 연금을 받는다면 월 지불금이 얼마나 될까.

남성은 395달러, 여성은 375달러다. 또 부부는 357달러를 평생 받는다. 만약 환불 옵션을 추가하면 각각 367달러, 351달러, 338달러를 받게 된다.

물론 60세에 돈을 넣고 5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받으면 가장 높게 주는 회사는 평생 566.83달러를 지불한다. 연 6.8% 이자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이야 평생 500여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20~30년 후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반 토막 가까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때를 위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페이먼트가 늘어나는 옵션도 있지만 월 지불금은 당연히 줄어 들 것이다.

### 세금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은 LIFO(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에 입금된 보험료가 IRS 세금 계산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보통 연금보험은 보험 내 축적되는 이자나 수익이 원금보다 먼저 지불되게 된다. 따라서 이자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불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즉시 연금 경우는 지불 금액의 상당 부분을 원금으로 취급한다. 즉시 지불하는 상품이므로 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를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 상품 설명서에 보면 세금 대상이 아닌 '제외 비율' (exclusion ratio)이 표시돼 있다. 예를 들어 88.8%라면 지불금의 88.8%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11.20%만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 주의점

많은 한인들이 구입했던 연금 보험을 자주 바꾼다.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타인(에이전트)의 권유가 많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연금 보험을 팔 때 커미션을 받으므로 한번 판매하고 나면 그만이다.

문제는 보험을 구입했던 가입자가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면 오히려 해약료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경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 팬더믹 중 운전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정비하라

오일 교환·브레이크 점검 필요  
 쥐, 엔진 후드에 기생해 있을 수도

팬더믹으로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가정들이 늘었다. 자연스럽게 정비에도 소홀했을 것이다. 연료비가 적게 들고 정비 비용이 들지 않아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동차는 운행하지 않으면 여러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잡지 컨슈머 리포트는 코로나 19의 해빙기에 들어서고 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운전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비 목록을 올렸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줘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운전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정상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

### 운전 시간이 아니라 거리에 초점 두기

자동차 정비는 2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 정비를 받은 후 운전한 '거리'와 '기간'이다.

우선 거리에 따른 필수 정비 목록 중 하나가 타이어 로테이션이다. 보통 5,000마일에 한번씩 타이어를 앞과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바꿔줘야 타이어 표면이 고르게 마모된다. 로테이션 위치는 자동차마다 다를 수 있다.

타이어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겠지만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하지 않은 타이어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돼 금이 갈 수 있다.

또 주행 거리가 많지 않았다면 엔진 냉각수와 에어 필터, 실내 공기 정화 필터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분야 수퍼바이저 조 이보스턴에 따르면 자동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 또는 10만 마일까지 냉각수 교체가 필요 없다면서 필터는 보통 매 1만5,000마일마다 점검하고 3만마일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그는 자동차 매뉴얼에 나온 정비 일정을 따라 가는 것이 좋지만 팬더믹 기간중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면 정기 점검 스케줄 보다 앞당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동네 스타벅스나 마



123RF

켓 등 짧은 거리를 주행했다면 시골 흙 길을 달리거나 트레일러를 끌고 다녔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단거리 주행하면 엔진내 증발 오일 제거에 필요한 충분한 온도까지 올려주지 못한다. 또 엔진 냉각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필수 부품까지 충분한 부식 방지 첨가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기어나 베어링 같은 필수 부품에도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 오일 교환하기 가장 중요함

주행 거리가 짧거나 오래 타지 않았다면 분명 오일 체인지를 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일 교환은 자동차 관리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다.

자동차 연수가 오래 될수록 매뉴얼에 적혀 있는 일정 대로 정비를 해야 오일과 엔진 보호 첨가제들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요즘 차들은 오일 교환 등 필요한 서비스를 대시보드에 표시해 준다.

오일을 교환할 때 모든 벨트와 호스 등을 점검한다. 이런 부품들은 엔진 열을 견뎌내야 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으면 쉽게 표면이 갈라진다.

또 자동차 배터리도 점검한다. 배터리는 영원히 갈수 없다. 주행 거리와도 상관없

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전돼 힘을 잃게 된다. 보통 3년이 지나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5~7년이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차를 오래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돼 생명이 줄어들는데 오래되지 않았다면 재충전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다. 가격은 25달러 부터 시작한다고 컨슈머 리포트는 전했다.

요즘은 전기 차들이 많이 나와 배터리를 교체할 때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비싼 돈 들여 딜러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타이밍 벨트도 절대 정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벨트는 자동차의 캠축(캠샤프트)을 돌려 엔진 밸브들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캠 샤프트를 돌려주지 못하면 엔진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보통 8만~10만 마일까지는 상태가 좋지 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 질 수 있다.

### 브레이크 점검하기

운전을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 생긴다. 표면에 약간 녹이 끼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운전을 시작하면 제동을 할 때 잡시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럴 때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몇번 제동을 해주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 부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압액이 공기중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유압을 올리지 못해 제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육안으로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브레이크 시스템을 청소해주고 브레이크 오일을 새것으로 교체해 줘야 한다.

또 디스크를 조여 자동차를 제동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부식됐는지도 확인한다. 세워둔 차를 처음 운전할 때 저속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즉시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면 쥐나 다람쥐들이 후드 밑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우습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 이상의 일반적인 문제다. 시동을 걸기전에 후드를 열어 확인하고 쥐 똥과 기타 이물질들을 제거한 후 시동을 건다. 특히 배기관을 잘 살펴본다.

또 먼지와 낙엽, 새 똥 등 페인트를 손상시킬 이물질 들을 제거한다. 전문가들은 정원 용 송풍기를 사용해 깨끗이 제거한 후 물로 씻어 내라고 조언한다. 천이나 브러시를 사용하면 페인트가 긁힐 수 있다. 선루프나 창문 사이의 이물질 들을 제거해야 작동이 잘 된다.

# “팬더믹으로 갇힌 시니어들에게 위로 됐으면...”

## 서울 메디컬그룹·휴매나 시니어에 도시락 전달

미국 한인 커뮤니티 최대 메디컬 그룹인 서울 메디컬 그룹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8일 LA한인타운 노인아파트 3곳을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가 주최하고 서울메디컬 그룹과 메디케어 보험회사 휴매나가 공동 참여해 도시락 500개와 마스크, 손세정제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날 노인아파트를 찾은 차민영 서울 메디컬 그룹 회장은 “1년동안 팬더믹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고생했다”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갇혀 살아야 했던 노인분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공동 참여한 휴매나 보험의 톱 홈시 마케팅 매니저는 “시니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보험회사로서 한인 사회 시니어들에게 영양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행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락을 전달 받은 아파트는 한인타운 동쪽에 위치한 ‘맥아더 팍 타워’



도시락 전달식이 열린 18일 서울 메디컬 그룹 차민영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휴매나 톱 홈시 마케팅 매니저(왼쪽 두번째)등 관계자들이 도시락을 선물용 가방에 담고 있다.

‘유니언 페라로 타워’ ‘라스 토레스’ 등 3 곳이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2주전인 5월 8일에 도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1250 우리방송’,

‘KCBS 기독교방송’ 과 함께 휴매나의 지원으로 어버이날 감사 효도 잔치를 개최했다. 가수 하정일, 이상열 등 추억의 가수들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한

인 시니어들이 참석해 팬더믹으로 닫혀있던 가슴을 활짝 열고 오랜만에 웃고 즐기며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 폐창가 리조트 1년만에 재개장

### 객실 늘리고 새단장 마무리

1년여 동안 팬더믹으로 문을 닫았던 남가주 테메큘라에 위치한 폐창가 리조트가 지난 25일부터 완전 재개장됐다.

폐창가 리조트는 지난해 4월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 당국의 모임 금지 조치로 전면 영업을 정지했었다. 하지만 부분 완화 조치로 지난해 6월 골프장과 카지노가 거리 두기와 제한된 테이블을 전제로 재개장했다.

앤드류 마시엘 폐창가 개발사 대표는 “매우 흥분된다”면서 “지난 수주동안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이 매우 만족해하는데 힘입어 개장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폐창가는 문은 닫는 동안 원래 건물 532개 객실을 새로 단장했고 이전 스파와 체육관 자리에 50개의 객실을 추가해 총 객실을 1,100개로 늘렸다.

## 김영중씨 수필집 ‘고향 하늘’ 발간



### 한국 ‘선우 명 수필선’ 45번째 미주 문단에서는 처음 선정

기자가 김영중(80)씨와 인연을 맺은 게 벌써 30년이다. 일간지 문화 기자시절이던 어느날 만난 김영중씨는 수필에 대한 애정이 뜨거웠던 ‘의지의 수필가’로 기억한다.

당시 미주 한인 문단에는 수필이 흥대받던 시절로 시와 소설에 밀려 생활 수기 정도의 흥대를 받았다. 그런 수필의 불모지를 시기와 견제속에 끊임없이 개척하고 후배를 양성하며 오늘의 미주 수필문단의 기초를 다졌던 장본인이 그였다.

그런 그가 한국 도서출판 선우 미디어의 ‘선우 명 수필선집’ 45번째 작가로 선정돼 김영중 수필선 ‘고향 하늘’을 출간

했다. 미주 문단에서는 처음이다.

‘선우 명 수필선집’은 수필가 김용구씨를 첫 번째 작가로 조경희, 정목일 등 한국 문단에서 인정 받는 작가들을 선정해 출판하는 권위 있는 선집이다.

김영중씨는 머리말에서 “선우 명 수필선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선집 하나쯤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면서 “언어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와 살면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글을 쓰며 견디고 위안을 받은 글들”을 골라 펴냈다고 적었다.

개인적으로는 7번째 수필집인 이 선집에는 이민 생활 초기의 글들이 40편 실렸다.

김영중씨는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 이름을 딴 수필 문학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자화상을 그려내는 ‘이민 수필 문학’의 발전을 위한 끝없는 열정을 토로했다.

김영중씨와 선우명 수필선 ‘고향마을’.

# 자녀·손주 대학 학자금 걱정되면 ‘529 플랜’ 가입하라

등록금, 기숙사비, 교제, 학용품 등 사용할 수 있어  
12만5,000달러 소득자 자녀 공립대 학비 용자 어려워  
주 정부 지원 플랜으로 k-12 학비까지 확대 사용 가능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한인 부모들은 많지 않다. 부모의 수입이 많지 않다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원금 또는 학자금 용자를 받아 교육을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중간한 중산층 수입을 가지고서는 자녀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아야 하므로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 학자금 부담만 지우게 된다.

연 소득 10만 달러의 가정이라면 자녀 대학 교육비로 20~25%는 사용해야 그나마 학자금 지원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를 공립대학에 보내는 가정의 수입이 12만5,000달러를 넘으면 그나마 지원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생긴 학자금 마련 플랜이 ‘529 컬리지 세이빙스 플랜’ (College Savings Plan)이다. IRS 택스 코드 번호를 얻은 ‘529 플랜’은 적립금에 대해 연방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구좌내 불어난 돈과 이자는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401(k)이나 IRA 자금을 손주들을 위한 529 대학 학자금 플랜에 적립해주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해 주지만 손주들이 대학 학비로 찾아 쓸 때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주 정부 지원 플랜

529 플랜은 주 정부의 지원으로 받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스칼라 세어 529’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일리노이는 ‘칼리지 일리노이’와 ‘브라이트 스타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캘리포니아는 적립금 세금 공제 혜택이 없지만 칼리지 일리노이는 연간 2만 달러까지 주 세금 감면을 해준다.

529 플랜은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돈을 적립하는 방법과 일시불로 주내 대학의 등록금을 현재 시세로 미리 적립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정기 납부 방식이 일반적이다.

529 플랜에서 돈을 찾아 쓰면 대학 학자금 신청(FAFSA) 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느냐고 묻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 돈은 FAFSA 수입에 계산되지 않음으로 학자금 지원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버몬트 사우스 벌링턴의 스캇 뷰딘 패

스웨이 재정 어드바이저는 “대학 학자금 모으는 플랜으로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요즘은 최소 적립금 제도가 없어 지거나 있어도 20~30달러로 매우 낮아져 많은 학부모나 조부모들이 자손들의 학자금 마련에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유치원부터 12학년 학비와 졸업 후 직업 교육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연방 의회가 1996년과 2001년 529 플랜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현재 와이오밍을 제외한 49개 주와 워싱턴 DC가 529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529 플랜 적립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행이나 레저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출이 축소되자 529 플랜에 더 많은 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또 요즘의 증권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적립금 역시 상당히 늘어났다.

플랜 홍보 그룹인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0년 연말 529 플랜 어카운트에 적립된 기금은 2019년에 비해 14% 늘어난 4,250억 달러다. 개설된 구좌 수도 1,500만 건에 달하면 평균 적립금은 2만9,000달러다.

## 주 정부들 인센티브 제공

주 정부들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전국 529의 날’을 맞아 복권 판매 적립금 매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 정부마다 구좌 개설 홍보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 플랜은 거주 지역 플랜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주는 타주 거주자에게도 주내 529 플랜 가입을 허용해 주지만 타주 529 플랜 적립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주는 많지 않다.

가입할 때 플랜 관리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다른 주의 플랜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통 플랜은 가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커미션을 받는 재정 어드바이저들이 판매하는 플랜보다 비용이 덜 들고 수익도 늘릴 수 있다.



또 대학 갈 나이에 가까울수록 위험한 주식에서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529 플랜은 자동 옵션으로 나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쪽으로 조절해 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투자 상품 변동을 항상 주의롭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네바다주에서 제공하는 529 플랜은 뱅가드 투자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뱅가드의 실수로 위험성이 더 큰 주식에 투자 비율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주식 상황이 매우 좋아 오히려 수익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무려 7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529 플랜에 대한 궁금증 일문일답이다.

-529 플랜 적립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경비, 교제, 학용품, 컴퓨터 등 장비 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29 적립금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나

갚을 수 있다. 2019년 제정된 법에 따르면 적립된 금액 중 최고 1만 달러까지 플랜 수혜자의 대출 학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 또 수혜자의 형제자매의 학자금도 각각 최고 1만 달러까지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조부모도 손주를 위해 529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나

적립할 수 있다. 올해 초 개정된 FAFSA(학자금 신청서) 개혁법에 조부모들의 적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개설해준 529 플랜에서 지급되는 돈은 FAFSA 신청 때 비과세 현금 지원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이럴 경우 학자금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FAFSA 신청서 질문 항목에 현금 지원 질문이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조부모 개설 529로부터 나오는 돈이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2022년 말 시작되는 2023~24학년도 FAFSA 신청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비용 사립 대학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자금 지원 신청서인 ‘CSS 프로파일’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손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 US메트로뉴스가 웹사이트로 독자 분들을 찾아갑니다

주소는 [usmetronews.com](http://usmetronews.com)이며 [wellbeingsus.com](http://wellbeingsus.com)을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읽을 거리 다양한 정보가 가득 담긴 US 메트로 뉴스가 독자분들의 즐겁고 유익한 미국 생활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일을 안 한 배우자도 배우자 연금 50% 받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 5면에서 계속

### 가족 최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일 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만일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한 배우자의 연금 최대 50%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영희 씨의 연금이 만기 연령인 66세 2개월에 신청해 연금을 3,148달러 받는다. 남편 철수 씨도 만기 은퇴 연령때 영희 씨 연금의 절반인 1,574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희 씨가 숨지면 남편 철수 씨는 1,547달러가 아니라 영희 씨의 연금 3,148달러로 같아타 받는다.

만약 영희 씨가 19세 이하 자녀나 장애 자녀를 두고 숨졌다면 이들 가족도 영희 씨의 기록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최대 금액 총액은 영희 씨의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연금 액의 150~180%다.

철수 씨가 영희 씨와 이혼했다고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영희 씨 사후 영희 씨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가족 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신청하고 6개월~1년에 한차례씩 확인해야

시니어 아파트 입주 10면에서 계속

입주를 희망한다면 62세 또는 55세부터 신청서를 내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또 6개월에 한번씩 입주 희망 의향과 수입 기준을 묻는 질문서가 아파트 측으로 부터 오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대기 순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전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다.

LA카운티에는 약 500여개의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

시니어 아파트는 HUD 웹사이트 검색 [resources.hud.gov](http://resources.hud.gov) 또는 [www.hud.gov/topics/information\\_for\\_seniorhousing.html](http://www.hud.gov/topics/information_for_seniorhousing.html)에서 LA카운티를 검색할 수 있다. LA 주택국은 [www.socialserve.com](http://www.socialserve.com)으로 검색 가능하다.

참고로 LA 'K타운액션' (대표 윤대중)은 LA 카운티가 지원하는 섹션 8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arp.lacda.org/ex/newApp.aspx](http://harp.lacda.org/ex/newApp.aspx)로 신청하면 된다.

### 고품격 웰빙 가이드 US메트로뉴스 콘텐츠

**최신뉴스**  
US 메트로 뉴스 웹사이트는 미국에서 사시는 한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최신뉴스**  
한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부터 건강, 보험, 은퇴 투자, 라이프, 유산계획 등등 다양한 메뉴에 담긴 생활 정보가 화면 가득히 여러 분과 인사합니다

**Culture & Art**  
**문화 이야기**  
US메트로뉴스만이 가진 이경수 화가의 '문화 이야기'도 웹사이트를 찾는 독자분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고 안락한 미술의 세계로 인도해 드립니다

**메거진**  
**US메트로뉴스**  
월간으로 발행되는 US메트로뉴스의 기사들이 웹사이트 배치돼 독자분들이 언제라도 원하시는 기사를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US Metro News.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US메트로뉴스' and 'wellbeingsus.com'.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news articles with images and headlines. On the right side, there are advertisements for NONGSHIM, 서울메디칼그룹 (Seoul Medical Group), and 한미보험 (Hanmi Insurance). At the bottom, there's a 'Magazine' section with a 'Culture & Art' section featuring a painting by Inkyoung Kim.

**커버 스토리**  
매달 발행되는 월간 US메트로뉴스의 커버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달의 주요 뉴스를 메인 기사로 재미있게 풀어 보드립니다.

**메트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기사 또는 광고가 올려집니다. 발로 뛰는 현장의 생생한 기사와 후원 업체의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  
주요 기사들이 분야별로 올려집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기사들, 또 재미있게 많이 읽은 기사들이 주로 업로드 됩니다. 저의 US 메트로뉴스는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 & 칼럼**  
김동희의 세상보기  
김동희의 세상보기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했던 김동희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전문가

홍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홍기자의 잘먹고 잘살기 언론사 출신의 공인회계사겸 수퍼맘 홍지은 전문 기자의 특특 튀는 생생 생활 컬럼이 여러분들에 다양하고 재미 있는 읽을 거리를 제공

# 요리에 맛과 스타일을 더하다



홍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 엄청난 존재감 ‘주물 냄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을 구경하다 보면 유난히 구매욕을 자극하는 주방용품이 있다. 바로 투박하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주물 냄비(Dutch Oven)로, 무쇠(Cast Iron)솥 혹은 무쇠 냄비라고도 불린다.

가마솥이나 솥뚜껑 같은 요리 도구에 익숙한 한인들에게 무쇠는 그리 낯설지 않은 소재다. 주물 냄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열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점. 뜨겁게 달구는데 일반 코팅 냄비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뜨거워진 이후에는 열 손실이 적다. 또한 열전도율이 높은 철의 특성 때문에 열이 냄비 옆면까지 골고루 전달돼 냄비 전체가 뜨거워져 음식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의 손실을 최소화 시킨다.

주물 냄비의 또 다른 특징은 본체만큼이나 무거운 뚜껑이다. 뚜껑이 무거우면 냄비 안의 압력이 올라가 압력솥과 같은 조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밥을 지으면 시골 가마솥에서 지은 것처럼 찰지고 맛있는 밥이 지어지고, 소고기미역국을 끓이면 소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들부들하게 익는 것이다.

뛰어난 열전도율과 열 보존을 때문에 찜부터 조림, 국물 요리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다. 주물 용품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프랑스의 르크루제(Le Creuset)나 스타우브(Staub)는 5~6쿼트 냄비 가격이 3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미국의 무쇠 전문 브랜드인 랫지(Lodge)를 비롯해 아이샤 커리(Aysha Curry), 브레미(Vremi), 아놀론(Anolon), 트라몬티나(Tramontina)의 제품들은 40~100달러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주물 냄비는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라 프리미엄 주물냄비를 구입하면 대대로 물려주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조리 도구로서의 기능만 원한다면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할 필요 없이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주물냄비는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세척 후 물을 잘 말리지 않으면 녹이 슬기 쉽고, 또한 정기적으로 시즈닝(Seasoning, 기름을 바른 뒤 스토브나 오븐에서 구워주는 방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시즈닝, 혹은 에나멜 코팅이 된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물 냄비를 구입해야 할까?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가 주물 냄비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5개의 브랜드를 선정했다. 각 브랜드 당 가족용으로 적당한 5.5~6쿼트의 기본 주물 냄비를 선정, 육류의 브라우닝과 해산물 캐러멜라이징, 베이킹, 조림 등의 부문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골라 오늘부터 주물 냄비와 함께하는 요리 신세계에 빠져볼까.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무쇠 냄비 베스트 5를 소개한다.

**1 르크루제 시그니처 에나멜드 라운드 프렌치(덧치) 오븐(Le Creuset Signature Enamelled Round French Dutch Oven) 5.5쿼트:** 주물 냄비계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르크루제는 명성만큼이나 모든 테스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일단 무게도 12파운드로 가장 가벼웠으며, 조리 면적 지름이 8인치에 달한다. 에나멜 코팅이 입혀져 있어 설거지가 용이하다. 또한 손잡이가 넓어 오븐미트를 낀 상태로 냄비를 옮기기 편리하다.

**2 스타우브 코코테 (Staub Cocotte) 5.5쿼트:** 스타우브는 뚜껑 안쪽에 돌기가 있어, 조리시 수증기를 모아 다시 수분으로 전환시켜, 조리시 음식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무게가 13파운드로 르크루제와 비슷했으며, 조리면적의 지름 역시 동일하게 8인치다. 역시 에나멜 코팅이 입혀져 있는데 크림색인 르크루제와는 달리 검은색 코팅이라 조리 시 음식이 캐러멜라이즈가



스타우브 주물냄비는 뚜껑안쪽에 돌기가 있어 조리시 수증기를 수분으로 전환시켜 음식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사진은 스타우브 코코테 4쿼트

되었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설거지할 때도 음식 잔여물이 남았는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랫지 에나멜 캐스트 아이언 덧치 오븐(Lodge Enamelled Cast Iron Dutch Oven) 6쿼트:** 미국 브랜드인 랫지는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지만 르크루제나 스타우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알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베이킹 테스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르크루제와 마찬가지로 넓은 손잡이가 편리하다. 무게는 14파운드이며 조리면적의 지름은 7인치이다.

**4 에이샤 커리 덧치 오븐(Aysha Curry Dutch Oven) 6쿼트:** 모든 테스트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설거지가 가장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해 실속파 요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 무게가 15파운드로 가장 무거웠다. 요리면적의 지름은 7인치다.

**5 브레미 덧치 오븐(Vremi Dutch Oven) 6쿼트:** 무게는 14파운드, 조리면적의 지름은 8인치. 다른 테스트에서는 보통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베이킹에서 탑 5개 브랜드 중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라이프 타임 워런티를 제공하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달리 화씨 450도 이상 오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홍(서)지은 기자



투박하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주물냄비. 사진은 스타우브 브레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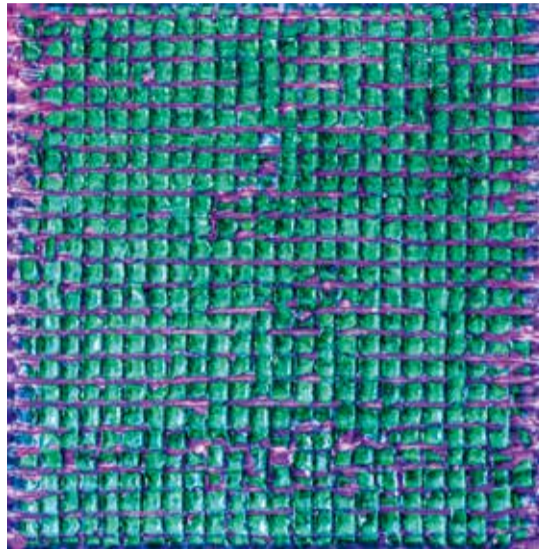
###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현 공인 회계사·슈퍼 맘/소셜 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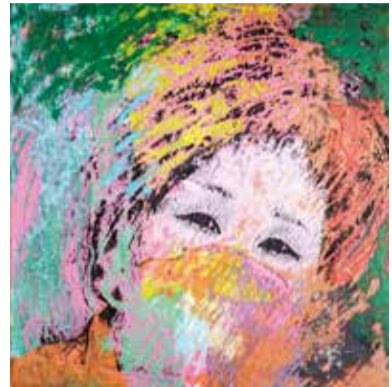
## 작가들 시선으로 바라본 코비드 19



김소연



영신



정동현



김영훈

## COVID 19-Beyond the Time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2020. 팬데믹이란 초유의 사태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을 힘겹게 보내

왔다. 이제, 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하여 희망이란 빛을 보고 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잃은 것도 있지만 동병상련이라는 공통분모를 얻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도전하는 남가주 작가 19인전이 'COVID 19-Beyond the Time' 이란 제목으로 6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리앤리갤러리(이 아그네스)에서 열린다.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주간씩 하는 릴레이 형식의 전시회로 회화, 도예, 사진, 전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코비드 19전은 어려운 기간 동안 경험했던 시간들의 기록들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도 보인다. 특별한 상황이 주는 현상적 체험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이 아그네스 관장의 말이다. 첫 번째 전시회는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며, 참여작가는 영신, 정동현, 김영훈, 김소연 작가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영신이 남가주 한인사회에 첫선을 보인다. 로올라 법대를 거쳐 뉴욕의 파슨스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종이로 추상적

## 5개 그룹 2주씩 릴레이 전시 회화, 도예, 사진, 전각 등 작품

## 영신 작가

강렬하고 때론 복잡한 질감의 표현이 독특

## 정동현 작가

상황적 체험과 두려움 극복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

## 김영훈 작가

책에서 찾은 감흥 관람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 김소연 작가

인간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경험을 이야기

인 그림을 그린다. 작업을 통해 심오하고 사색적이며 명상, 연상적인 경험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의 작품에서는 반복되는 여러 겹의 종이 층에서 형성된 패턴과 선들 속에서 깊이 있는 그녀만의 내면의 대화를 엿 볼 수 있다. 그녀는 일상생활 자체가 예술의 형식이며 플랫폼. 그 속에서 묵상, 명상, 전념, 헌신을 통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의 숙달에 흥미와 영감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작품에선 강렬하고 때론 복잡한 질감의 표현이 독특하게도 눈길을 끈다. 그 질감의 물리적 깊이 속에서 전념과 헌신의 주제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그녀의 작품세계를 읽을 수 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이런 작품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남가주에서 한지 작가로 잘 알려진 작가 정동현이 이번에는 코비드 19에 맞는 작품들을 들고나왔다.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에 쓰인 마스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눈에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 그녀가 써 내려간 팬데믹 일기에는 "두려움이 온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일기스듯 하나씩 모양을 잡아 손에 쥐어 보니 두려움은 한 발 뒤고 물러나 있었다. 2020년 소중한 것을 알게 해 준 해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팬데믹을 겪으면서 작가는 상황적 체험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해 주었다. 기록과 함께 치유가 되는 작품들이다. 제작과정은 한지를 여러 겹 붙이고 밀어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작가 정동현은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하였고,

한지를 이용한 추상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업은 치과의사이면서 남가주에서 서예와 전각 등의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온 김영훈 작가도 이번 전시회에 합류한다. 그의 모든 작업의 시작은 동양의 고전에서부터 한국의 현대사에 이르는 모든 책 속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찾는다. 그는 책 속에 숨겨있는 주옥같이 빛나는 '보석'을 찾겠다고 말하며, 책에서 받은 영감을 옮길 전각들의 형태와 크기를 정한다. 그에 어울리는 서체를 정하고 디자인하며, 선택된 각으로 작품이 진행된 각이 완성되면 인주로 화선지 위로 올려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한미서예가협회, 묵향회 등지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전시회에서도 그가 책에서 찾은 감흥을 관람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소연 작가는 뉴욕 파슨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후 프렛트대학원에서 페인팅을 전공한 젊은 작가다. 그녀의 작품에서는 주로 인간 형태를 다룬 작품이 많은데 그 속에서 작가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경험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배경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인간형태의 변형을 포함한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쾌적함과 불편함을 포용하는 것이므로 내 그림 속에 불편함과 신비를 가져오는 긴장감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작가의 설명이다. 끊임없이 직면하는 삶의 긴장감을 잘 표현하려고 한 김소연 작가의 도전 있는 작품이 기대된다.





Sing again, like before...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 현혜명 전시회 후기

5월 내내 나의 모든 시선은 뉴욕으로 향했다. 시작부터 쏟아져 나오는 낭보에 경의로움을 금치 못하는 하루하루였다. 뉴욕 맨하튼 트라베카 지역의 화랑에서 전해져 오는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그 전시회의 주인공은 바로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현혜명 작가다. 개인적으로 나와 현선생님은 엘에이에서 1980년대부터 알고 지내던 미술계의 동료이자 선배이다. 자연을 작품의 소재로 다루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항상 내 마음속에 특별한 친근감이 있는 분이다. 오랜 시간 남가주에 거주하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전시회를 하시며 묵묵히 작가의 길을 걸어오신 한인 남가주 미술계의 원로 현혜명 작가.

그런 그녀가 이번에 과감히 뉴욕 중심가의 화랑에서 제대로 일을 냈다. 전시회

오프닝 전부터 작품의 반응이 호평을 받더니 작품 판매에 성공은 물론, 전시회가 끝난 시점에서도 다시 연장 전시회를 할 만큼 분위기는 뜨거웠다.

“Sing again like never before...”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캘리포니아 원로 현혜명 작가의 회고전이 아시안 퍼시픽 헤리티지달을 맞이하여 뉴욕 트라베카의 One Art Space에서 지난 5월 1일 열렸으며, 좋은 반응에 힘입어 5월 28일까지 연장 전시되었다. 그림 인생 50년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귀한 전시회였다. 현혜명 화가는 서울 미대 회화과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아트를 졸업하고 하트포트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꾸준히 미국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작품의 소재를 꽃, 나무, 새, 숲 등 자연에서 찾고 있으며 그가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은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산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것이 내 그림의 밑

바탕에 깔려있고, 나의 손과 뛰는 심장과 나만이 보는 눈으로 그 세계를 그린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에선 소박하고 따뜻하며 때론 섬세하기도 하고 밝고 명랑하다. 소녀같은 동심이 묻어나는 작품들도 보이고, 자유로운 마음의 유희로 표현된 순수함도 만나게 된다. 보아서 따뜻하고 편안한 그림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탄탄한 자신의 삶의 철학과 소신, 그리고 자유로운 질서가 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작가 현혜명의 그림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번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또 다른 주인공은 그레이스 지 큐레이터이다. 30년 전 현선생님과 인연을 시작으로 자신과의 마음속의 약속을 끝내 지켜낸 숨은 공로자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 화랑에 들어가 무엇보로 “나 이 작가 작품 좋으니 여기서 전시회 하고 싶다”고 용기 있게 말하여 성사가 된 전시회다. 물론 현선생님의 역량을 알아본 화랑 측의 결정이겠지만 그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한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전시회였고, 그런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공에 기뻐한다.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라크라센터 하나님의 정원을 이제 맨하튼으로 옮겨 봄의 아름다운 전원 교향곡을 들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녀. 삭막한 뉴욕에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속 아트에 대한 열망이 꽃피워 열매 맺기 바라며 Sing again, like before... 새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은 작품과 열정이 그의 시간에 완성을 이룬 아름다운 전시회였다. 두 분의 쾌거를 축하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가주 미술계에도 활력을 줄 전시회로 기억이 될 것 같다.

이경수글

남가주 미술계의 원로 작가  
뉴욕 트라베카 지역서 전시  
연장 전시, 뜨거운 인기 확인

# 아파서 간 소아과, 자신감을 얻어오다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 무릎 굽히고 눈높이 맞춰 '작은 어른'으로 대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모습에 놀라

얼마 전 아홉 살 딸과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에 갈 때마다 딸 아이는 묻는다. “엄마, 에릭 선생님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병원이 제일 좋아요.”

아이가 말하는 ‘에릭 선생님 병원’은 한인타운에 있는 ‘이웃케어클리닉’이다. 에릭 선생님은 그곳에서 딸을 진료해주시던 주치의였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바뀌어서 다른 병원에 가지만 아이는 아직도 ‘병원’이라고 하면 ‘에릭 선생님’을 떠올린다. 아이를 ‘어린이’가 아닌 ‘작은 어른’으로 대해주셨던 의사 선생님이다.

그날 아이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간지러워했다. 에릭 선생님께서는 “안녕, 그레이스. 오랜만이구나”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내가 막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의 눈은 내가 아닌 아이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는 내가 아닌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셨다.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굽히고는 눈높이를 맞췄다. “잘 지냈니?”라고 안부를 묻자 아이가 “네 좋아요(I am fine).”라고 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척을 했다. 그러면서 “어? 그래? 그럼 오늘 나는 너를 볼 필요가 없겠네?”라고 말했다.

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나 눈이 아파요. 빨갛게 됐어요”라고 아픈 곳을 설명했다. 에릭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앞으로 다시 다가와 “그럼 한 번 볼까?”하고 진료를 시작하셨다. 아이가 자신의 아픈 상태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이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봐 준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도 놀랐다. 이때 아이는 만 5세였다.

이후에도 에릭 선생님은 아이를 어른 환자와 똑같이 대하셨다.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해주고, 허락을 구하고, 질문했다. 처음에 아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용 침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때도 아이에게 물었다. “여기 침대 위에 앉을 거야. 내가 너를 위로 올려서 앉혀줘도 될까?” 청진기를 아이 몸에 댈 때도 살짝 입김을 불어 청진기의 차가운 부분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나는 몇 마디 하지 않았다. 아이가 환자이니 당연했지만, 나에게 아이는 겨우 다섯 살의 ‘어린이’였다. 아이가 직접 아픈 곳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달랐다.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몸에 손이 닿을 때는 양해를 구했다. 아이를 ‘어른’처럼 대했다. 이날의 경험은 오랫동안 나에게 남았다. 나도 이날 이후로는 아이를 조금씩 ‘어른’처럼 대하기



이웃케어클리닉 닥터 에릭 선생님과 그레이스 송 어린이의 모습.

시작했다. 믿어주니 아이도 달라졌다. 엄마 생각보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았고, 엄마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는 것도 늘었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 ‘작은 어른’으로 크고 있다.

아직도 가끔 이날을 생각한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께 어디가 아픈지 설명했다며 매우 뿌듯해했다.

선생님이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면 약 먹을 시간이 언제인지 몇 번씩이나 물었다. 약 먹으라고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자기 약을 스스로 챙겨 먹고는 꽤나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아파서 간 병원에서 아이는 자신감을 얻어 왔다. 일상의 값진 경험 덕분에 우리는 한 뼘 자랐다. 아이도, 엄마도, 말이다.

## 무료 유방암, 대장암 검사 받으세요

한인 커뮤니티의 비영리 클리닉들이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위한 무료 유방암, 대장암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유방암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여성 중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연방빈곤선 200%)이 대상이다.

무료 대장암 검사는 45세 이상인 사람

중 무보험, 저소득층이고 최근 1년새 대변 잠혈검사나 10년 이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가능하다. 고려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대변잠혈검사 키트(FIT Kit)를 받아서 대변을 채취한 뒤 우편으로 다시 보건소로 보내면 된다.

무료 검사 조건이나 방법 및 무료 유방암과 대장암 교육 등은 전화로 문의(310-423-7410) 가능하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5)

### Pediatrics: 소아과 (페디어트릭스)

아기가 태어나서 18세까지 다니는 병원. 전미소아과협회(AAP)는 출산전 아기가 가게될 소아과를 미리 방문하고 의사를 만나볼 것을 권한다. 소아과 닥터는 pediatrician (페디어트리션).

### Physical: 정기검진 (피지컬)

‘육체’라고 번역되지만 병원 예약을 할 때 ‘피지컬’ 이냐고 물으면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방문이냐는 의미다.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의사를 만나는 것은 Office visit (오피스 비지트).

### Lactation: 수유 (락테이션)

유아에게 모유 또는 우유를 먹이는 것으로 이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전문가를 lactation consultant (락테이션 컨설턴트)라고 한다. 출산 병원에서 추천받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 Eczema: 습진 (엑지마)

피부에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한국어로 ‘아토피’ 증상을 말할 때 많이 쓰인다. 아토피성 피부염도 큰 의미로는 피부염 중 하나이고 습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구영순 메디케어·메디칼 구소라

(213)595-4700

무/료/상/담

(213)925-7547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받으실 분
- 메디케어, 메디칼, HMO보험 있으신 분  
더 많은 혜택의 플랜 변경 도와드립니다.
- 이사, 직장보험 탈퇴, 신분의 변화 있으신 분
-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 SNP 특별혜택 가능
- 더 많은 OTC, 무제한 한방 침, 한약, 부황, 뜸...
- 치과, 안경, 보청기,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 수영, 탁구... 월 보조금 지급

### 구영순 메디케어 칼럼

## ② 메디케어 가입시기는?

메디케어 첫 가입시기는 65세 생일 달을 기준 하여 그 생일 달의 앞뒤로 3달 즉, 7개월 동안 가능하다. 예를 들어 65세의 4월이 생일 달이면 생일 전 3개월 1, 2, 3월 그리고 생일 후 3개월 이면 5, 6, 7월이 가능한 기간이다. 즉 메디케어 가입가능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이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65세 이상 Tax 40쿼터 그리고 합법적인 5년 이상의 미국 거주자)이 되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어 파트 B의 경우 벌금이 보험료의 년 10%를 평생 벌금을 내야 한다. 1년에 10%, 2년 안 내면 20%, 3년 안 내면 30%, 그리고 가입시기를 놓치고 몇 년 뒤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메디케어가 없으면 비싼 병원비 전액을 지불하게 되므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시기를 놓친 분은 매년 1월 1일~3월 31일에 신청하면 7월 경이나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메디케어 신청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시기를 놓쳐 늦게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사회보장국에 직접가서 신청해야 한다.

전화상담 구영순 (213) 595-4700



조선일보NA메디케어 칼럼니스트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7947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상당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 플랜**

있습니다

[무료상담/가입 의무 없음]

[전화예약 후 상담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선스 에이전트  
CA LIC. #OF30104

## 수호천사보험

“정직합니다. 실력과 경험도 풍부합니다.”

2140 W. Olympic Blvd. #214, Los Angeles, CA 90006

구영순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4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www.seoulmedicalgroup.com](http://www.seoulmedicalgroup.com)



 **NONGSHIM**<sup>®</sup>  
**SHIN**  
SINCE 1986

*Just Act on Your  
Spicy Instinct!*

